

목 차

Contents

100세 시대 대비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포럼

Session

I. 노인의 일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 -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의 다차원적 효과 평가	1
---	---

▶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조강연

100세 시대 고령자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61
------------------------	----

▶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ession

II. 자기주도적 노인자원봉사활동과 노인 봉사자의 긍정적 변화	89
------------------------------------	----

▶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III. 노인자원봉사 현황 및 발전방향	111
-----------------------	-----

▶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종합토론

139

▶ 고재욱 (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ession

I

노인의 일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의 다차원적 효과 평가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의 다차원적 효과 평가

이 소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개요

- 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중고령자들이 노년기에 보다 의미있는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20년에 이르면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최소한 20여년의 시간을 노년기로 보내야 함을 의미하며, 짧지 않은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적극적 계획이 요구됨.
- 일,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유의미한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유익한 결과 초래
 -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나향진, 2004; 정순돌·이은주, 2005; 김수정, 2006; 권미애·김태현, 2008)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적 제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 등 양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유의미한 가치 창출
-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경우 고령자 인적자원의 활용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
 -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은 노인의 인적자원의 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됨. - 45-49세의 경우 대졸자의 비율이 29.6%, 50-54세의 경우 18.5%인 반면 55-59세는 11.6%, 60-64세는 9.5%에 불과(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꾸준히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노인일자리를 양적으로 확충함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둬.
 - 반면 지속적인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자리의 욕구충족률이 낮으며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개발되지 못함으로써 계층포괄성 및 일에 대한 노인 욕구의 다양성을 흡수함에 있어 한계를 보임
 - 전체 노인 중 일자리를 보유하지 못한 80%(355만명) 가운데 32.2%(114만명)가 향후 일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08 노인생활실태조사).

- 특히 앞으로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백세시대'로 표현되듯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고 보았을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고민이 필요함.
 -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2010년에는 2913억이 배정되어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장 등과 함께 예산 투입이 높은 노인복지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노인인력 활용 방안의 모색이 절실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를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해 분석 수행
 - 거시적 측면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밝히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참여자와 비참여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차원적 영역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 연구 개요

2. 노인일자리사업 효과 평가 조사 개요

- 타당한 효과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 비교집단 설정연구
 - 조사대상자 : 2011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신규참여자 700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대기자 300명
- 노인일자리사업의 다면적 효과분석 실시(경제적효과, 건강증진효과, 사회심리적 효과, 사회네트워크 효과)
- 조사 위탁 업체 : TNS research
- 조사 기간 : 2011.9.19 ~ 2011.10.14(약 4주)

- 분야별 개요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
 - 노인가구의 생계부양형태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가족 간 소득이전 변화, 가구원 경제활동의 변화,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의 경제적 기여도 등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의 건강증진효과
 -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건강 및 의료이용 수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며 ‘건강증진’ 개념 도입, 노인의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자 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의료이용실적뿐만 아니라 건강증진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 다각도로 접근하여 이를 살펴볼 필요성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의 심리사회적 효과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한 심리정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결과가 전무함. 따라서 건강상태를 구성하는 심리정서적 요인 및 사회적 자원을 포함시켜 건강상태를 다각도로 측정하고자 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 및 심리정서적 만족감 간의 관계에 대한 규명
 -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네트워크 효과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사회네트워크의 양적 차이 검증
 - 사회네트워크는 객관화 및 양화 시켜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지원(support), 비공식 네트워크의 양, 공식적 네트워크의 양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측정
 - 지원(support)는 경제적 지원, 돌봄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해 측정
 - 비공식 네트워크는 비동거 자녀, 친척, 친구 및 이웃과의 연락 빈도 및 접촉 횟수로 측정
 - 공식적 네트워크는 각종 사회단체에의 참여정도로 측정

<표 1> 조사 내용 개요

인적사항	성, 생년월일, 교육수준		항목별 2010년 및 2011년 월소득	
가족	혼인상태	경제	기초노령연금 수급유무 및 금액	
	가구구성		노인일자리소득, 소득의 경제적 도움 정도	
	동거 가족관계 만족도		노인일자리소득의 활용처	
	(노인본인 외) 요돌봄 가구원 정보		노인일자리 외 근로 유무, 내용, 금액	
	비동거가족, 친척, 친구·이웃 연락빈도, 접촉빈도, 거리		가구원 근로정보 - 관계, 종사상지위, 소득액	
	비동거가족, 친척, 친구·이웃 관계 만족도		가구내 노인세대 항목별 소득	
	가족·친구관계 가치관, 성역할 가치관		항목별 10년 월평균 지출	
	사업참여에 대한 가족의 반응		주택	
	사회		단체활동 참여 정도, 사회기관 참여정도	경제상태
심리	우울, 자존감, 생활만족도	참여실태	참여동기	
생활시간	생활시간		참여경로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상병현황		참여신청시기, 참여기간	
	월 의료이용횟수		일자리만족	
	일자리사업 때문에 의료이용 못한 경험		근무조건	
	의료보장방법		노인일자리사업유형, 소속기관, 활동내용	
	흡연, 음주, 키, 몸무게		참여하면서 좋은점, 어려운 점	
	체중에 대한 생각, 체중관리		기타	자원봉사 의향
	일상적인 활동량, 규칙적 운동수행			다른 일자리/부업 의향 및 예상소득금액
건강정보수집	원하는 일의 형태			

II 노인일자리사업의 다차원적 효과 평가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개요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 : 남자가 38.7%, 여자가 61.3%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성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은 : 중졸이하가 75.7%, 고졸이 15.5%, 대학이상이 8.8%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졸이하의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상태 : 상이 0.8%, 중상이 3.4%, 중이 45.9%, 중하가 32.5%, 하가 17.4%의 응답률을 보여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경제상태를 중간이거나 그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형태 : 노인부부가 40.3%, 자녀동거가 31.6%, 독거가 26.8%, 기타가 1.2%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혼인상태 : 유배우자 57.2%, 사별 40.7%, 이혼 1.2%, 별거 0.9%의 순으로 나타남.
- 종교 : 있다는 사람이 59.8%, 없다는 사람이 40.2%로 종교가 있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거주지 유형 : 대도시가 39.8%, 중소도시가 40.1%, 농어촌이 20.1%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높음.
- 세부 거주 광역시도 : 경기 14.9%, 서울 13.0%, 부산 10.1%, 강원 7.9%, 전북 7.2%, 전남 7.0%, 경북 6.3%, 충북/경남 5.9%, 대구 5.4%, 인천/충남 4.9%, 대전 3.2%, 광주 2.5%, 울산 0.9%의 순으로 나타남.

〈표 2〉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387	38.7
	여	613	61.3
교육수준	중졸이하	716	75.7
	고졸	147	15.5
	대학이상	83	8.8
경제상태	상	8	0.8
	중상	33	3.4
	중	441	45.9
	중하	312	32.5
	하	167	17.4
가구형태	독거	268	26.8
	노인부부	403	40.3
	자녀동거	315	31.6
	기타	12	1.2
혼인상태	유배우자	572	57.2
	사별	407	40.7
	별거	9	0.9
	이혼	12	1.2
종교	있음	598	59.8
	없음	402	40.2
거주지 유형	대도시	398	39.8
	중소도시	401	40.1
	농어촌	201	20.1
거주광역시도	서울	130	13.0
	부산	101	10.1
	대구	54	5.4
	인천	49	4.9
	광주	25	2.5
	대전	32	3.2
	울산	9	0.9
	경기	149	14.9
	강원	79	7.9
	충북	59	5.9
	충남	49	4.9
	전북	72	7.2
	전남	70	7.0
	경북	63	6.3
경남	59	5.9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특성

- 조사대상자들의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응답자 : 참여노인 70.0%, 비참여노인 30.0%로 이루어져 있음.
 - 사업유형 : 공익형이 35.0%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형 22.1%, 복지형 26.1%, 사업형 16.8%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수행기관 : 노인복지관이 27.2%, 시니어클럽이 22.2%, 지자체가 18.9%, 대한노인회가 14.1%, 사회복지관이 8.1%, 노인복지센터 4.9%, 기타 4.3%, 지역문화원 0.3%의 순으로 나타남.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응답자 유형	참여노인	700	70.0
	비참여노인	300	30.0
사업유형	공익형	350	35.0
	교육형	221	22.1
	복지형	261	26.1
	사업형	168	16.8
수행기관 유형	지자체	189	18.9
	노인복지관	272	27.2
	노인복지센터	49	4.9
	대한노인회	141	14.1
	시니어클럽	222	22.2
	지역문화원	3	0.3
	사회복지관	81	8.1
	기타	43	4.3

나. 조사대상자의 참여유형별 현황

- 참여유형별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 :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남자노인비율은 각각 36.9%, 43.0%로 비참여노인의 비율이 높으나 여자노인비율은 각각 63.1%, 57.0%로 참여노인의 비율이 높았음.
 - 연령 : 참여노인의 경우는 60-69세가 38.1%, 70-74세가 38.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

고, 비참여노인의 경우는 60-69세가 45.0%, 70-74세가 33.7%, 74세 이상이 21.3%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 :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비율은 중졸이하가 75.1%, 77.1%이고 고졸이 각각 16.0%, 14.6%이며, 대학이상이 각각 9.0%, 8.3%로 비슷하였다.
- 거주지역 :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비율은 대도시가 각각 39.9%, 39.7%이고, 중소도시가 각각 40.3%, 39.7%, 농어촌이 각각 19.9%, 20.7%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형태 :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비율은 독거가 각각 27.9%, 24.4%, 노인부부가 각각 39.2%, 43.1%, 자녀동거가 각각 31.5%, 31.8%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음.

<표 4> 참여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참여노인	비참여노인
성별	남	258	129
		36.9	43.0
	여	442	171
		63.1	57.0
	소계	700	300
	100.0	100.0	
연령	60-69세	267	135
		38.1	45.0
	70-74세	266	101
		38.0	33.7
	75세 이상	167	64
23.9		21.3	
소계	700	300	
	100.0	100.0	
교육수준	중졸이하	494	222
		75.1	77.1
	고졸	105	42
		16.0	14.6
	대학이상	59	24
9.0		8.3	
소계	658	288	
	100.0	100.0	
거주지역	대도시	279	119
		39.9	39.7
	중소도시	282	119
		40.3	39.7
	농어촌	139	62
19.9		20.7	
소계	700	300	
	100.0	100.0	
가구형태	독거	195	73
		27.9	24.4
	노인부부	274	129
		39.2	43.1
	자녀동거	220	95
31.5		31.8	
기타	10	2	
	1.4	0.7	
소계	699	299	
	100.0	100.0	

다. 사업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사업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 : 공익형(56.5%), 복지형(78.2%), 사업형(60.7%)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하여 높으나 교육형의 경우는 남자 50.7%, 여자 49.3%로 비슷한 성비를 보이고 있음.
- 연령 : 60-69세가 교육형은 52.5%, 복지형은 42.5%, 사업형은 51.2%로 각각 사업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익형의 경우는 70-74세가 4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 : 중졸이하가 공익형 88.1%, 복지형 85.9%, 사업형 78.5%로 다른 교육수준 집단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형의 경우는 중졸이하가 43.0%, 고졸이 29.0%, 대학이상이 2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거주지역 : 대도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형이 각각 39.4%, 39.8%, 39.8%, 40.5%이고, 중소도시는 39.7%, 39.8%, 39.8%, 41.7%이며, 농어촌은 각각 20.9%, 20.4%, 20.3%, 17.9%로 거주지역별로 사업유형 분포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형태별 : 공익형은 노인부부가 38.9%로 가장 많았고, 자녀동거 30.1%, 독거 28.9%의 순으로 큰 차이가 없는 비율이었으나 교육형의 경우는 노인부부가 50.2%, 자녀동거가 30.8%, 독거가 16.3%인 것으로 나타남. 복지형의 경우는 독거와 노인부부가 각각 34.6%로 같고 자녀동거가 30.4%였으며, 사업형의 경우는 노인부부와 자녀동거가 각각 37.5%로 같고, 독거가 24.4%인 것으로 나타남.

<표 5> 사업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형	
성별	남	152	112	57	66	
		43.4	50.7	21.8	39.3	
	여	198	109	204	102	
		56.6	49.3	78.2	60.7	
	소계	350	221	261	168	
		100.0	100.0	100.0	100.0	
연령	60-69세	89	116	111	86	
		25.4	52.5	42.5	51.2	
	70-74세	156	62	102	47	
		44.6	28.1	39.1	28.0	
	75세 이상	105	43	48	35	
		30.0	19.5	18.4	20.8	
	소계	350	221	261	168	
		100.0	100.0	100.0	100.0	
	교육수준	중졸이하	289	92	207	128
			88.1	43.0	85.9	78.5
고졸		29	62	29	27	
		8.8	29.0	12.0	16.6	
대학이상		10	60	5	8	
		3.0	28.0	2.1	4.9	
소계		328	214	241	163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역	대도시	138	88	104	68	
		39.4	39.8	39.8	40.5	
	중소도시	139	88	104	70	
		39.7	39.8	39.8	41.7	
	농어촌	73	45	53	30	
		20.9	20.4	20.3	17.9	
	소계	350	221	261	168	
		100.0	100.0	100.0	100.0	
가구형태	독거	101	36	90	41	
		28.9	16.3	34.6	24.4	
	노인부부	139	111	90	63	
		39.8	50.2	34.6	37.5	
	자녀동거	105	68	79	63	
		30.1	30.8	30.4	37.5	
	기타	4	6	1	1	
		1.1	2.7	0.4	0.6	
	소계	349	221	260	168	
		100.0	100.0	100.0	100.0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비참여자의 제 특성 및 만족도 분석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배경

가. 노인일자리사업 인지경로

□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음.

-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는 경로는 대체적으로 가족, 친구, 지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지차체, 종합사회복지관, 매체/경로당 순으로 나타나 노인 일자리사업을 인지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주변사람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인 경우는 노인복지관(37.7%)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유형중에서 교육형의 경우도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31.2%)가 타 사업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활동의 특성상의 이유인 것으로 생각됨.
- 성별 : 남성은 매체나 지자체와 같은 공적인 경로를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는데 반하여, 여성은 가족, 친구, 지인과 같은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행기관별 : 가족, 친구, 지인을 통해서가 대체적으로 가장 많았으나 노인복지관이 수행기관인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39.3%)가, 사회복지관이 수행기관인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33.3%)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노인일자리사업 인지경로

(단위 : 명, %)

구분		가족, 친구 지인	매체	지차체	경로당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기타	합계
참여현황	참여노인	320	33	85	47	140	60	15	700
		45.7	4.7	12.1	6.7	20.0	8.6	2.1	100.0
	비참여노인	123	21	43	10	63	34	6	300
		41.0	7.0	14.3	3.3	21.0	11.3	2.0	100.0
사업 유형별	공익형	162	19	64	24	52	25	4	350
		46.3	5.4	18.3	6.9	14.9	7.1	1.1	100.0
	교육형	78	15	26	6	69	20	7	221
		35.3	6.8	11.8	2.7	31.2	9.0	3.2	100.0
	복지형	116	12	23	14	55	38	3	261
		44.4	4.6	8.8	5.4	21.1	14.6	1.1	100.0
	사업형	87	8	15	13	27	11	7	168
		51.8	4.8	8.9	7.7	16.1	6.5	4.2	100.0

<표 6> 노인일자리사업 인지경로(계속)

구분		가족·친구 지인	매체	지자체	경로당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기타	합계	
참여자 특성별	교육 수준	중졸이하	347	29	92	44	123	68	13	716
			48.5	4.1	12.8	6.1	17.2	9.5	1.8	100.0
		고졸	56	10	22	6	39	11	3	147
			38.1	6.8	15.0	4.1	26.5	7.5	2.0	100.0
		대학이상	23	10	6	1	31	8	4	83
			27.7	12.0	7.2	1.2	37.3	9.6	4.8	100.0
	성별	남	150	27	61	26	80	32	11	387
			38.8	7.0	15.8	6.7	20.7	8.3	2.8	100.0
		여	293	27	67	31	123	62	10	613
			47.8	4.4	10.9	5.1	20.1	10.1	1.6	100.0
	연령별	60-69세	176	29	54	12	83	34	14	402
			43.8	7.2	13.4	3.0	20.6	8.5	3.5	100.0
		70-74세	173	20	40	18	74	38	4	367
			47.1	5.4	10.9	4.9	20.2	10.4	1.1	100.0
		75세이상	94	5	34	27	46	22	3	231
			40.7	2.2	14.7	11.7	19.9	9.5	1.3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167	28	53	19	76	43	12	398
			42.0	7.0	13.3	4.8	19.1	10.8	3.0	100.0
		중소도시	182	25	38	18	98	32	8	401
			45.4	6.2	9.5	4.5	24.4	8.0	2.0	100.0
		농어촌	94	1	37	20	29	19	1	201
			46.8	0.5	18.4	10.0	14.4	9.5	0.5	100.0
	가구 형태	독거	126	8	38	17	53	21	5	268
			47.0	3.0	14.2	6.3	19.8	7.8	1.9	100.0
		노인부부	167	25	50	25	83	42	11	403
			41.4	6.2	12.4	6.2	20.6	10.4	2.7	100.0
		자녀동거	143	21	38	14	64	30	5	315
			45.4	6.7	12.1	4.4	20.3	9.5	1.6	100.0
기타		6	0	2	0	3	1	0	12	
		50.0	-	16.7	-	25.0	8.3	-	100.0	
수행기관 유형별	지자체	96	8	63	5	9	5	3	189	
		50.8	4.2	33.3	2.6	4.8	2.6	1.6	100.0	
	노인복지관	87	17	16	10	107	34	1	272	
		32.0	6.3	5.9	3.7	39.3	12.5	0.4	100.0	
	노인복지센터	27	5	0	1	12	3	1	49	
		55.1	10.2	-	2.0	24.5	6.1	2.0	100.0	
	대한노인회	56	5	15	28	32	2	3	141	
		39.7	3.5	10.6	19.9	22.7	1.4	2.1	100.0	
	시니어클럽	121	16	28	4	24	19	10	222	
		54.5	7.2	12.6	1.8	10.8	8.6	4.5	100.0	
	지역문화원	3	0	0	0	0	0	0	3	
		100.0	-	-	-	-	-	-	100.0	
	사회복지관	32	2	3	5	10	27	2	81	
		39.5	2.5	3.7	6.2	12.3	33.3	2.5	100.0	
	기타	21	1	3	4	9	4	1	43	
		48.8	2.3	7.0	9.3	20.9	9.3	2.3	100.0	

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이유

-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이유를 살펴보면 생계비 마련, 용돈마련 등의 경제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업유형별 : 다른 사업유형별과 달리 교육형은 경제적 이유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여가활동, 사회참여, 건강유지 등의 이유가 타 사업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사업유형에 따른 경제 상태를 보면, 교육형 응답자의 경제 상태는 상(1.4%), 중상(6.9%), 중(58.8%)이 타 사업유형의 응답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바탕으로 볼 때, 교육형 응답자의 사업 참여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다른 참여 이유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교육수준별 :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이유보다는 타 이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교육수준별 경제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학력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경제 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생각됨.
 - 거주지역별 :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갈수록 생계비마련이 타 이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거주지 유형별 경제상태를 살펴볼 때,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갈수록 경제상태가 어렵다는 응답의 경향이 커지는 것이 이유로 생각됨
 - 가구형태별 : 독거의 경우가 생계비 마련의 이유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독거의 가구형태를 가진 응답자가 타 응답자에 비해 경제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표 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이유

(단위: 명, %)

구분		생계비 마련	건강증진 유지	용돈 마련	소외감 해소	여가 활동	사회 참여	자아실현 자기발전	봉사	합계	
참여현황	참여노인	330	45	216	6	53	37	12	1	700	
		47.1	6.4	30.9	0.9	7.6	5.3	1.7	0.1	100.0	
	비참여노인	146	16	100	0	21	12	5	0	300	
		48.7	5.3	33.3	-	7.0	4.0	1.7	-	100.0	
사업 유형별	공익형	213	14	103	3	10	5	2	0	350	
		60.9	4.0	29.4	0.9	2.9	1.4	.6	-	100.0	
	교육형	49	18	65	2	41	34	11	1	221	
		22.2	8.1	29.4	0.9	18.6	15.4	5.0	0.5	100.0	
	복지형	138	13	85	0	16	6	3	0	261	
		52.9	5.0	32.6	-	6.1	2.3	1.1	-	100.0	
	사업형	76	16	63	1	7	4	1	0	168	
		45.2	9.5	37.5	0.6	4.2	2.4	0.6	-	100.0	
참여자 특성별	교육수 준	중졸이하	383	32	245	4	31	15	6	0	716
			53.5	4.5	34.2	0.6	4.3	2.1	0.8	-	100.0
		고졸	48	10	50	0	20	14	5	0	147
			32.7	6.8	34.0	-	13.6	9.5	3.4	-	100.0
		대학이상	16	10	13	1	20	17	5	1	83
			19.3	12.0	15.7	1.2	24.1	20.5	6.0	1.2	100.0
	성별	남	158	33	123	3	34	24	11	1	387
			40.8	8.5	31.8	0.8	8.8	6.2	2.8	0.3	100.0
		여	318	28	193	3	40	25	6	0	613
			51.9	4.6	31.5	0.5	6.5	4.1	1.0	-	100.0
	연령별	60-69세	179	25	130	1	39	20	7	1	402
			44.5	6.2	32.3	0.2	9.7	5.0	1.7	0.2	100.0
		70-74세	185	21	109	3	27	14	8	0	367
			50.4	5.7	29.7	0.8	7.4	3.8	2.2	-	100.0
		75세이상	112	15	77	2	8	15	2	0	231
			48.5	6.5	33.3	0.9	3.5	6.5	.9	-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209	19	118	1	30	15	6	0	398
			52.5	4.8	29.6	0.3	7.5	3.8	1.5	-	100.0
		중소도시	185	23	119	4	31	30	9	0	401
			46.1	5.7	29.7	1.0	7.7	7.5	2.2	-	100.0
농어촌		82	19	79	1	13	4	2	1	201	
		40.8	9.5	39.3	0.5	6.5	2.0	1.0	0.5	100.0	
참여자 특성별	가구 형태	독거	187	8	54	1	14	3	1	0	268
			69.8	3.0	20.1	0.4	5.2	1.1	.4	-	100.0
		노인부부	168	28	124	3	39	29	11	1	403
			41.7	6.9	30.8	0.7	9.7	7.2	2.7	0.2	100.0
	자녀동거	115	23	132	2	21	17	5	0	315	
		36.5	7.3	41.9	0.6	6.7	5.4	1.6	-	100.0	
	기타	5	1	6	0	0	0	0	0	12	
		41.7	8.3	50.0	-	-	-	-	-	100.0	

<표 8> 유형별 경제상태

(단위 : 명, %)

구분		경제상태					
		상	상중	중	중하	하	합계
사업 유형별	공익형	1	4	125	125	77	332
		0.3	1.2	37.7	37.7	23.2	100.0
	교육형	3	15	127	51	20	216
		1.4	6.9	58.8	23.6	9.3	100.0
	복지형	0	8	104	88	47	247
		-	3.2	42.1	35.6	19.0	100.0
사업형	4	6	85	48	23	166	
	2.4	3.6	51.2	28.9	13.9	100.0	
교육수준	중졸이하	4	19	302	244	132	701
		0.6	2.7	43.1	34.8	18.8	100.0
	고졸	2	6	70	43	25	146
		1.4	4.1	47.9	29.5	17.1	100.0
	대학이상	1	5	51	20	5	82
		1.2	6.1	62.2	24.4	6.1	100.0
거주지 유형	대도시	3	11	150	138	78	380
		0.8	2.9	39.5	36.3	20.5	100.0
	중소도시	4	15	177	123	66	385
		1.0	3.9	46.0	31.9	17.1	100.0
	농어촌	1	7	114	51	23	196
		0.5	3.6	58.2	26.0	11.7	100.0
가구 형태	독거	3	5	97	96	55	256
		1.2	2.0	37.9	37.5	21.5	100.0
	노인부부	2	20	195	110	59	386
		0.5	5.2	50.5	28.5	15.3	100.0
	자녀동거	3	8	142	100	53	306
		1.0	2.6	46.4	32.7	17.3	100.0
	기타	0	0	6	5	0	11
		-	-	54.5	45.5	-	100.0

2.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기대

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희망 급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희망 월급여는 다음과 같음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희망 월급여는 50-99만원이 49.8%로 가장 많았음. 50만원 미만은 27.0%, 100만원 이상은 23.3%로 나타남.

- 실제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가 20만원이 가장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급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유형별 희망 월급여를 살펴보면,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 모두 50-99만원, 5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의 순의 희망급여를 원함.
- 사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공익형, 복지형, 사업형이 50-99만원, 5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의 순인데 반하여 교육형은 100만원이상이 43.8%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많았음. 50-99만원은 34.2%, 50만원 미만은 21.9%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은 급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희망 월급여

		빈도	백분율(%)
희망월급여	50만원 미만	116	27.0
	50-99만원	214	49.8
	100만원 이상	100	23.3
	합계	430	100.0

<표 10> 유형별 희망 월급여

(단위 : 명, %)

희망 월급여		50만원 미만	50-99 만원	100만원이상	합계
대상별	참여노인	81	141	65	287
		28.2	49.1	22.6	100.0
	비참여노인	35	73	35	143
		24.5	51.0	24.5	100.0
사업유형별	공익형	47	99	30	176
		26.7	56.3	17.0	100.0
	교육형	16	25	32	73
		21.9	34.2	43.8	100.0
	복지형	33	57	20	110
		30.0	51.8	18.2	100.0
사업형	20	33	18	71	
	28.2	46.5	25.4	100.0	

3.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가. 노인일자리사업 현재활동 선택 이유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현재활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현재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담당자의 권유로 선택했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았음. 능력적성이 맞아서가 24.4%, 근무조건이 맞아서가 10.0%, 활동처가 가까워서가 8.1%, 덜 힘들어서가 5.4%, 하던 일과 관련이 높아서가 3.6%, 이 일자리 밖에 없어서인 경우가 0.4%, 지인의 권유가 0.3%,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서가 0.1%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게 된 경로는 지인, 친척, 주변의 소개가 가장 높았으나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권유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노인들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11> 노인일자리사업 현재활동 선택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담당자의 권유로	327	46.7
능력과 적성에 맞아서	171	24.4
하던 일과 관련이 높아서	25	3.6
활동처가 가까워서	57	8.1
급여가 높아서	6	0.9
근무조건이 맞아서	70	10.0
덜 힘들어서	38	5.4
지인의 권유	2	0.3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서	1	0.1
이 일자리 밖에 없어서	3	0.4
합계	700	100.0

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활동별 선택이유

□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 활동별 선택 이유를 보면, 교육활동과 가족친화지원을 제외한 모든 활동의 선택이유가 담당자의 권유인 것으로 나타남. 교육활동의 경우는 능력과 적성에 맞아서인 경우가 5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족친화지원의 경우는 담당자의 권유, 능력과 적성에 맞음, 근무조건이 맞음이 각각 33.3%인 것으로 나타남.

<표 1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활동별 선택이유

(단위 : 명, %)

구분	담당자 권유	능력 적성 맞음	하던 일과 관련	활동처 근접함	높은 급여	근무 조건 맞음	덜 힘듦	지인 권유	어떤일 있는지 모름	이일자 리밖에 없음	합계
환경개선사업	84	14	1	17	0	15	5	0	1	0	137
	61.3	10.2	0.7	12.4	-	10.9	3.6	-	0.7	-	100.0
교통질서 확립	35	4	0	7	0	5	5	0	0	1	57
	61.4	7.0	-	12.3	-	8.8	8.8	-	-	1.8	100.0
공공기관시설지원	11	6	1	6	0	9	4	0	0	0	37
	29.7	16.2	2.7	16.2	-	24.3	10.8	-	-	-	100.0
복지보육시설지원	16	13	2	6	0	4	4	0	0	0	45
	35.6	28.9	4.4	13.3	-	8.9	8.9	-	-	-	100.0
교육활동	47	80	12	2	0	10	1	2	0	0	154
	30.5	51.9	7.8	1.3	-	6.5	0.6	1.3	-	-	100.0
소외계층 노인지원	70	26	2	9	1	11	14	0	0	1	134
	52.2	19.4	1.5	6.7	0.7	8.2	10.4	-	-	0.7	100.0
가족친화지원	1	1	0	0	0	1	0	0	0	0	3
	33.3	33.3	-	-	-	33.3	-	-	-	-	100.0
기타 노인일자리사업	6	2	0	0	1	2	0	0	0	0	11
	54.5	18.2	-	-	9.1	18.2	-	-	-	-	100.0
창업형산업	52	24	7	10	2	13	5	0	0	1	114
	45.6	21.1	6.1	8.8	1.8	11.4	4.4	-	-	0.9	100.0
파견사업	5	1	0	0	2	0	0	0	0	0	8
	62.5	12.5	-	-	25.0	-	-	-	-	-	100.0

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간에 따른 숙련 정도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숙련도가 높아지고, 지식이 축적되는 활동인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그러한 편이 28.1%, 그렇지 않은 편이 24.7%,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 6.0%, 매우 그렇다는 편이 0.7%로 나타남.

<표 13> 기간에 따른 숙련도, 지식 축적 활동 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2	6.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3	24.7
보통이다	283	40.4
그러한 편이다	197	28.1
매우 그렇다	5	0.7
합계	700	100.0

4. 노인일자리사업 지속 여부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차년도 참여 계획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음.
 - 차년도 참여 계획에 대하여 전체중 92.7%의 응답자가 현재 일을 희망하고 있으며, 모든 유형에서 현재 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 : 교육형에서 가장 현재일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에서는 고졸학력을 가진사람 중에서 현재일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음. 성별에서는 현재희망하는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으며, 연령에서는 75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거주지역에서는 농어촌이,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가 현재일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일을 희망하거나 그만 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근로조건이 맞지 않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표 14> 노인일자리 사업 차년도 참여 희망여부

(단위 : 명, %)

구분		현재일 희망	다른일희망	그만두길희망	총합	
참여현황		649	38	13	700	
		92.7	5.4	1.9	100.0	
사업유형별	공익형	225	17	2	244	
		92.2	7.0	0.8	100.0	
	교육형	149	3	2	154	
		96.8	1.9	1.3	100.0	
	복지형	168	9	5	182	
		92.3	4.9	2.7	100.0	
	사업형	107	9	4	120	
		89.2	7.5	3.3	100.0	
참여자 특성별	교육수준	중졸이하	457	27	10	494
			92.5	5.5	2.0	100.0
		고졸	101	2	2	105
			96.2	1.9	1.9	100.0
		대학이상	51	7	1	59
			86.4	11.9	1.7	100.0
	성별	남	242	14	2	258
			93.8	5.4	0.8	100.0
		여	407	24	11	442
			92.1	5.4	2.5	100.0
	연령별	60-69세	248	14	5	267
			92.9	5.2	1.9	100.0
		70-74세	242	20	4	266
			91.0	7.5	1.5	100.0
		75세이상	159	4	4	167
			95.2	2.4	2.4	100.0
	거주지역	대도시	259	16	4	279
			92.8	5.7	1.4	100.0
		중소도시	256	18	8	282
			90.8	6.4	2.8	100.0
농어촌		134	4	1	139	
		96.4	2.9	0.7	100.0	
가구형태	독거	176	14	5	195	
		90.3	7.2	2.6	100.0	
	노인부부	263	9	2	274	
		96.0	3.3	0.7	100.0	
	자녀동거	200	14	6	220	
		90.9	6.4	2.7	100.0	
	기타	9	1	0	10	
		90.0	10.0	-	100.0	

<표 15> 노인일자리사업 변경이나 중단 희망 이유

(단위: 명, %)

변경이나 중단 희망 이유		근로 조건 맞지 않음	먼거리	동료와의 관계	기술, 능력 부족	건강	재미 없음	다른일 구함	기타	합계	
참여현황		25	5	2	1	9	5	1	3	51	
		49.0	9.8	3.9	2.0	17.6	9.8	2.0	5.9	100.0	
사업 유형별	공익형	10	3	0	0	3	3	0	0	19	
		52.6	15.8	-	-	15.8	15.8	-	-	100.0	
	교육형	2	0	0	1	0	0	1	1	5	
		40.0	-	-	20.0	-	-	20.0	20.0	100.0	
	복지형	5	0	2	0	5	2	0	0	14	
		35.7	-	14.3	-	35.7	14.3	-	-	100.0	
사업형	8	2	0	0	1	0	0	2	13		
	61.5	15.4	-	-	7.7	-	-	15.4	100.0		
참여자 특성별	교육 수준	중졸이하	19	5	2	0	8	3	0	0	37
			51.4	13.5	5.4	-	21.6	8.1	-	-	100.0
		고졸	2	0	0	0	1	0	1	0	4
			50.0	-	-	-	25.0	-	25.0	-	100.0
	대학이상	2	0	0	1	0	2	0	3	8	
		25.0	-	-	12.5	-	25.0	-	37.5	100.0	
	성별	남	6	0	0	0	4	3	0	3	16
			37.5	-	-	-	25.0	18.8	-	18.8	100.0
		여	19	5	2	1	5	2	1	0	35
			54.3	14.3	5.7	2.9	14.3	5.7	2.9	-	100.0
	연령별	60-69세	10	3	0	1	2	1	1	1	19
			52.6	15.8	-	5.3	10.5	5.3	5.3	5.3	100.0
		70-74세	13	2	2	0	4	2	0	1	24
			54.2	8.3	8.3	-	16.7	8.3	-	4.2	100.0
		75세이상	2	0	0	0	3	2	0	1	8
			25.0	-	-	-	37.5	25.0	-	12.5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11	2	1	1	4	0	1	0	20
			55.0	10.0	5.0	5.0	20.0	-	5.0	-	100.0
중소도시		12	3	1	0	4	3	0	3	26	
		46.2	11.5	3.8	-	15.4	11.5	-	11.5	100.0	
농어촌		2	0	0	0	1	2	0	0	5	
		40.0	-	-	-	20.0	40.0	-	-	100.0	
가구 형태	독거	14	2	1	0	1	0	0	1	19	
		73.7	10.5	5.3	-	5.3	-	-	5.3	100.0	
	노인부부	3	1	1	1	2	2	1	0	11	
		27.3	9.1	9.1	9.1	18.2	18.2	9.1	-	100.0	
	자녀동거	7	2	0	0	6	3	0	2	20	
		35.0	10.0	-	-	30.0	15.0	-	10.0	100.0	
기타	1	0	0	0	0	0	0	0	1		
	100.0	-	-	-	-	-	-	-	100.0		

제3절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1. 사업유형에 따른 만족도

□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급여 만족도는 사업형이 16.18(sd=4.50)으로 복지형 7.45(sd=1.97), 교육형 6.95(sd=0.63), 공익형 3.62(sd=2.82)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직무 내용 만족도는 교육형이 12.30(sd=1.63)으로 공익형 11.66(sd=1.46), 복지형 11.63(sd=1.53), 사업형 11.18(sd=1.74)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 환경 만족도는 교육형이 17.19(sd=2.79)로 복지형 16.85(sd=3.14), 공익형 16.55(sd=2.71), 사업형 15.64(sd=2.34)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서비스 환경 만족도는 교육형이 20.13(sd=2.35)으로 복지형 19.79(sd=2.25), 공익형 19.69(sd=2.22), 사업형 19.13(sd=2.13)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교육형이 3.98(sd=0.53)으로 복지형 3.88(sd=0.48), 공익형 3.88(sd=0.49), 사업형 3.68(sd=0.55)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6> 사업유형별 만족도

구분		n	M	SD	df	F
급여 만족도	공익형	244	3.62	2.82	3	579.58***
	교육형	154	6.95	0.63		
	복지형	182	7.45	1.97		
	사업형	120	16.18	4.50		
직무내용 만족도	공익형	244	11.66	1.46	3	11.98***
	교육형	154	12.30	1.63		
	복지형	182	11.63	1.53		
	사업형	120	11.18	1.74		
근로환경 만족도	공익형	244	16.55	2.71	3	7.53***
	교육형	154	17.19	2.79		
	복지형	182	16.85	3.14		
	사업형	120	15.64	2.34		
서비스환경 만족도	공익형	244	19.69	2.22	3	4.61**
	교육형	154	20.13	2.35		
	복지형	182	19.79	2.25		
	사업형	120	19.13	2.13		
전반적 만족도	공익형	244	3.88	0.49	3	7.90***
	교육형	154	3.98	0.53		
	복지형	182	3.88	0.48		
	사업형	120	3.68	0.55		

*** p < .001, ** p < .01, * p < .05

2. 거주지 유형별 만족도

□ 거주지 유형별 만족도는 다음과 같음.

- 근로환경 만족도의 경우는 중소도시가 16.90(sd=2.97)로 대도시 16.53 (sd=3.00)나 농어촌 16.20(sd=2.02)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환경의 만족도도 중소도시가 20.21(sd=2.41)로 대도시 19.31 (sd=2.24)나 농어촌 19.53(sd=1.74)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농어촌이 3.91(sd=0.43)로 대도시 3.81(sd=0.53)나 중소도시 3.90(sd=0.53)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급여만족도나 직무내용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았음.

<표 28> 거주지 유형별 만족도

구분	n	M	SD	df	F	
급여만족도	대도시	279	7.71	5.13	2	0.89
	중소도시	282	7.53	5.11		
	농어촌	139	7.01	4.79		
직무내용 만족도	대도시	279	11.65	1.71	2	0.83
	중소도시	282	11.80	1.62		
	농어촌	139	11.65	1.32		
근로환경 만족도	대도시	279	16.53	3.00	2	3.04*
	중소도시	282	16.90	2.97		
	농어촌	139	16.20	2.02		
서비스환경 만족도	대도시	279	19.31	2.24	2	11.90***
	중소도시	282	20.21	2.41		
	농어촌	139	19.53	1.74		
전반적 만족도	대도시	279	3.81	0.53	2	3.27*
	중소도시	282	3.90	0.53		
	농어촌	139	3.91	0.43		

*** p < .001, ** p < .01, * p < .05

제4절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동년배와 비교한 경제적 형편 만족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사업집단)과 대기자(비교집단)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살펴봄.

- 동년배와 비교해 자신의 경제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참여자의 경제적 만족도가 2.82점으로 대기자에 비해(2.71점)에 비해 다소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두 집단 모두 주관적 경제적 상태는 보통수준(그저그렇다) 이하에 있는 것으로 보였음. 참여자 유형별로 보면 참여자가 대기자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미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 두 집단 모두 가구형태가 노인부부일수록, 교육형일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19> 참여자 유형별 동년배 비교 경제적 형편 만족도

구분		참여자	F	대기자	F	t
전체		2.82	-	2.71	-	1.57
성별	남성	2.90	2.79	2.75	.464	-
	여성	2.77		2.67		
연령	60-69	2.86	.456	2.72	.382	-
	70-74	2.81		2.76		
	75-79	2.74		2.60		
	80이상	2.82		2.58		
교육수준	중졸이하	2.84	1.36	2.74	1.106	-
	고졸	2.82		2.55		
	대학이상	2.60		2.89		
가구형태	노인독거	2.68	3.51*	2.47	4.660**	-
	노인부부	2.95		2.91		
	부부+자녀	2.88		2.75		
	기타	2.69		2.41		
지역	대도시	2.76	.77	2.61	1.224	-
	중소도시	2.84		2.74		
	농어촌	2.88		2.84		
사업유형	공익형	2.65	9.79***	2.44	6.875***	-
	교육형	3.18		3.10		
	복지형	2.80		2.63		
	시장형	2.71		2.85		

*** p < .001, ** p < .01, * p < .05

2. 현재 경제상태 수준에 대한 만족도

□ 노인이 자신의 경제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펴봄.

- 비교 대상 없이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재 경제상태는 참여자 및 대기자 각각 2.77점, 2.66점으로 중간수준(‘그저 그렇다’) 이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경제적 욕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태가 낮은 대기자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가 필요함.
- 집단별 특성을 보면 참여자의 경우 노인부부 가구형태일수록,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교육형일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대기자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수록, 교육형일수록 경제적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참여자 유형별 현재 경제상태 수준

구분		참여자	F	대기자	F	t
전체		2.77	-	2.66	-	1.83
성별	남성	2.90	8.13**	2.62	.364	-
	여성	2.70		2.68		
연령	60-69	2.84	1.23	2.64	.483	-
	70-74	2.75		2.60		
	75-79	2.66		2.79		
	80이상	2.79		2.67		
교육수준	중졸이하	2.77	.41	2.68	.069	-
	고졸	2.81		2.62		
	대학이상	2.67		2.68		
가구형태	노인독거	2.59	7.68***	2.59	.975	-
	노인부부	2.95		2.76		
	부부+자녀	2.80		2.58		
	기타	2.63		2.56		
지역	대도시	2.63	5.41**	2.48	4.084*	-
	중소도시	2.86		2.74		
	농어촌	2.86		2.84		
사업유형	공익형	2.65	12.25***	2.38	7.367***	-
	교육형	3.14		3.01		
	복지형	2.71		2.72		
	시장형	2.63		2.67		

*** p < .001, ** p < .01, * p < .05

3. 참여자 및 대기자의 소득원별 평균 가구소득수준

-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두 시점에서 참여자와 대기자의 경제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여 살펴보았음.
- 2010년 시점에서 참여자 집단과 비교집단의 경상소득을 비교하면 참여자 집단은 연간 1,183만원이고, 비교집단은 연간 1,284만원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2011년도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간 총소득 평균은 사업 참여자 집단은 705만원, 비교집단은 692만원으로 나타나 참여자 집단의 소득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
 - 다시 말해 사업참여 이전인 2010년도 연간 소득수준은 참여자가 대기자 집단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2011년도 사업 참여 후에는 참여자 집단이 대기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참여자 집단은 월평균 18만원 정도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 비교집단은 월평균 소득 7만원 정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증가 폭이 낮았음.
-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각 소득원별로 평균 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2010년, 2011년 두 시점 모두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소득액을 보인 것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었음. 참여자 집단과 대기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보인 것은 가구총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절대적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표 21> 참여자 및 대기자의 소득원별 평균 가구소득수준

(단위 : 만원/년, 6개월)

구분	2010		t	2011		t
	참여자	대기자		참여자	대기자	
근로소득및사업소득	1180.39	1399.29	-1.82	450.57	810.40	-5.57
자산소득	656.96	667.18	-0.06	380.75	362.06	0.19
공적이전소득	321.93	354.85	-0.74	165.08	207.38	-1.50
사적이전	252.64	274.24	-1.11	129.49	139.70	-1.08
기타소득	303.45	299.76	0.04	1.92	1.90	0.79
총소득(경상소득)	1183.83	1284.63	-1.21	705.40	692.73	0.24
월평균소득	99.55	107.81	-1.19	117.57	115.46	0.24

※ 2010년은 연간소득 (2010.1.~2010.12.31) 기준
 ※ 2011년은 6개월(2011.3.1~2011.8.31) 기준

4. 참여자 및 대기자의 소득원별 평균개인소득수준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개인 소득수준을 가구소득과 분리시켜 파악함.
- 참여자의 총소득은 일자리사업 참여 전에 연간 평균 535만원 수준이었으나 참여 후에는 평균 333만원 정도로 감소함.
 - 참여자 집단 및 비교집단의 월평균 개인소득액 변화를 보면 참여자 집단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월평균 10만원 정도의 소득증가를 보인 것과 반대로 비교집단의 경우 월평균 4만원 정도의 소득감소가 발생함.
 - 2010년도에는 참여자 집단과 대기자 집단 사이에 월평균 소득은 차이가 없었으나 2011년도 월평균 소득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가구경상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원 중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 노인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살펴 본 결과는 자산소득과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원별 평균 소득액 규모에서 가장 컸음.
 - 2010년도 기준에서 대기자가 참여자보다 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이 높았지만 2011년도에 접어들어 이러한 양상이 뒤바뀌어 대기자의 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6%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참여자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이 포함되어 소득 감소폭이 대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상됨.

<표 22> 참여자, 대기자의 평균 개인소득수준

(단위 : 만원/년, 6개월)

구분	2010		t	2011		t
	참여자	대기자		참여자	대기자	
근로소득및사업소득	198.05	257.05	-1.40	129.62	92.87	1.51
자산소득	588.81	470.77	0.70	346.87	226.50	1.28
공적이전소득	256.80	215.16	1.03	256.80	215.16	1.03
사적이전	193.48	202.89	-0.53	98.35	104.79	-0.74
기타소득	303.45	299.76	0.04	87.56	71.62	0.36
총소득(경상소득)	535.51	520.47	0.34	333.13	232.46	4.59
월평균소득	44.63	43.37	0.34	55.52	38.74	4.585***

*** p < .001, ** p < .01, * p < .05

※ 2010년은 연간소득 (2010.1~2010.12.31) 기준

※ 2011년은 6개월(2011.3.1~2011.8.31) 기준

5. 참여전후 노인가구 빈곤율

- 정부가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빈곤율을 산출해 봄.
- 참여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56.4%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 이는 동일한 기준으로 빈곤율을 계산한 선행연구(이석원 외, 2008)에서 58.0%의 빈곤율을 보인 것과 그 수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선행연구에서 참여 전후의 빈곤율 변화가 6.1% 정도 감소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참여 전 빈곤율은 71.1%이고 참여 후 빈곤율은 56.4%로 낮아져 가구빈곤율이 14.7% 정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집단과 비교해 하위집단별로 상대적으로 빈곤율 감소가 높은 경우는 만 70~74세 연령층 -16.6%, 남성 -16.7%, 중졸이하 -15.0%, 대학이상 -21.1%, 노인독거 -15.4%, 노인부부 가구 -21.6%, 농어촌 지역 -17.2%, 교육형 사업 참여자 -24%, 시장형 참여자 -20.3% 였음.

<표 23> 참여전후 노인가구 빈곤 가구율(참여자집단)

(단위 : %)

구분	시점간 빈곤율 ¹⁾		비율변화 (B-A)	
	2010 (A)	2011(B)		
전체	71.1	56.4	-14.7	
성별	남성	72.1	55.4	-16.70
	여성	70.6	57.0	-13.60
연령	만60 - 69세	64.4	49.8	-14.60
	만70 - 74세	75.6	59.0	-16.60
	만75 - 79세	76.7	64.7	-12.00
	만80세 이상	67.6	55.9	-11.70
교육수준	중졸이하	71.0	56.0	-15.00
	고졸	71.4	57.1	-14.30
	대학이상	69.2	48.1	-21.10
가구 형태	노인독거	80.0	64.6	-15.40
	노인부부	86.9	65.3	-21.60
	부부+자녀	34.0	34.0	0.00
	기타	53.9	56.4	2.50
지역	대도시	72.0	58.1	-13.90
	중소도시	68.4	54.3	-14.10
	농어촌	74.8	57.6	-17.20
사업 유형	공익형	76.6	66.8	-9.80
	교육형	57.1	33.1	-24.00
	복지형	74.2	62.6	-11.60
	시장형	73.1	52.8	-20.30

주 1) 정부발표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사용

6. 2010년 평균 생활비 지출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일자리 소득의 상당부분은 생활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이석원 외, 2008).
-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참여자 집단(2011년 참여)과 비교집단 사이의 전체 평균소비 수준은 거의 동일하며 소비패턴도 매우 유사함.
- 식비, 지출생활비, 교통, 보건의료비 등 소비성 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소비성 지출에는 경조사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가족생활보조 및 용돈 등의 경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 2010년 한해 평균 생활비 지출(월평균, 만원)

생활비 항목	참여자집단	대기자집단
식료품·주류 및 비주류음료, 담배	28.38	29.10
의류·신발(직물, 신발)	4.26	4.35
지출 생활비 - 주거·수도·광열(실제주거비, 연료비)	10.63	10.85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전·가정용기기, 가사서비스)	2.59	2.15
보건(의약품, 외래의료서비스)	5.83	5.80
교통(자동차 구입, 운송기구 연료비, 대중교통비)	6.34	5.81
통신(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우편 등 통신서비스)	5.39	5.70
오락·문화(운동 및 오락서비스, 서적, 단체여행비)	1.92	1.78
교육(정규교육, 학원교육, 성인학원교육)	2.87	2.80
음식·숙박(식사비, 숙박비)	3.95	4.14
기타상품·서비스(위생 및 이미용용품, 보험)	3.52	3.53
기타 가계지출(현금 및 각종 기부금, 가족생활보조 및 용돈, 과태료, 범칙금 등)	5.56	5.69
비소비성지출(경조사비, 소득세, 연금, 이자비용, 이자상환액)	3.88	7.09
전체 평균소비	6.64	6.83

제5절 노인일자리사업의 심리적 효과 분석

1. 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 사이의 심리적 특성을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을 중심으로 비교함
 - 참여노인은 비참여노인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효능감,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반면 우울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차원에서 참여노인은 비참여노인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25> 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구분		M	SD	df	t
자아효능감	참여노인	16.30	3.09	998	2.42*
	비참여노인	15.79	3.08		
우울	참여노인	19.21	5.92	998	-2.35*
	비참여노인	20.19	6.25		
삶의 만족도	참여노인	56.20	12.00	998	3.47***
	비참여노인	53.55	10.65		
삶의 질	참여노인	2.89	0.87	998	3.06**
	비참여노인	2.70	0.88		

*** p < .001, ** p < .01, * p < .05

2.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사업유형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가. 사업유형별 현시점에서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

- 사업유형에 따라 참여노인의 자아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봄.
 - 자아효능감 : 교육형사업참여노인은 평균 17.92, 복지형사업참여노인은 16.61, 사업형참여노인은 15.78, 공익형참여노인은 15.65로 교육형참여노인의 자아효능감이 가장 높고, 공익형참여노인의 자아효능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울 : 공익형참여노인이 20.3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업형참여노인이 19.60, 복지형참여노인이 18.93, 교육형참여노인이 17.40의 순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 : 교육형참여노인이 64.09, 복지형참여노인이 55.21, 사업형참여노인이 54.81, 공익형참여노인이 52.65의 순으로 나타났음.

- 삶의 질 : 교육형참여노인이 3.45, 사업형참여노인이 2.79, 복지형참여노인이 2.75, 공익형참여노인이 2.68로 나타남.
- 사업유형에 따라 집단간에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 삶의 질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사후검증을 통해 교육형참여노인의 경우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자아효능감,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은 유의미하게 높고 우울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사업유형별 현시점에서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공익형	244	15.65	20.37	52.65	2.68
교육형	154	17.92	17.40	64.09	3.45
복지형	182	16.16	18.93	55.21	2.75
사업형	120	15.78	19.60	54.81	2.79
ss(df)		540.92(3)	868.80(3)	13079.53(3)	64.67(3)
F		20.48***	8.53***	34.68***	32.66***

*** p < .001, ** p < .01, * p < .05

나. 사업유형별 참여전후 심리적 특성 변화도의 차이

-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해 참여한 후에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사업유형별로 비교함
 - 자아효능감에서의 변화 : 교육형참여노인이 3.80, 복지형참여노인이 3.55, 공익형참여노인이 3.46, 사업형참여노인이 3.4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형참여노인의 변화정도가 다른 세 유형의 참여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우울에서의 변화 : 사업형참여노인이 3.63, 공익형참여노인이 3.57, 교육형과 복지형참여노인이 3.51로 사업형참여노인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음. 그러나 우울변화수준에 대한 집단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일자리사업 참여 후 우울이 변화된 정도는 참여하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의 변화 : 교육형참여노인이 3.69, 복지형참여노인이 3.57, 공익형참여노인이 3.53, 사업형참여노인이 3.48로, 교육형참여노인의 변화수준은 다른 세 유형의 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사업형참여노인의 변화수준은 다른 세 유형의 참여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삶의 질에서의 변화 : 교육참여노인이 3.69, 복지형참여노인이 3.57, 공익형참여노인이 3.53, 사업형참여노인이 3.48의 순으로 나타남.
- Duncan 사후검증결과, 교육형참여노인과 복지형참여노인의 삶의 질에서의 변화수준은 공익형참여노인과 사업형참여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7> 사업유형별 참여전후 심리적 특성 변화도의 차이

		자아효능감 변화	우울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삶의 질 변화
공익형	244	3.46	3.57	3.60	3.53
교육형	154	3.80	3.51	3.75	3.69
복지형	182	3.55	3.51	3.62	3.57
사업형	120	3.45	3.63	3.51	3.48
ss(df)		12.53(3)	1.38(3)	4.34(3)	3.40(3)
F		11.09***	0.84	3.11*	2.73*

*** p < .001, ** p < .01, * p < .05

3.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가. 성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 현시점에서 성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 남성노인의 자아효능감은 17.01로 여성노인의 자아효능감 15.89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울은 남성노인이 18.60, 여성노인이 19.57로 여성노인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삶의 만족도는 남성노인이 57.88, 여성노인이 55.22로 남성노인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 삶의 질 또한 남성노인이 2.99로 여성노인의 삶의 질 2.83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8> 성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구분	n	M	SD	df	t
자아효능감	남성노인	258	17.01	698	4.70***
	여성노인	442	15.89		
우울	남성노인	258	18.60	698	-2.10*
	여성노인	442	19.57		
삶의 만족도	남성노인	258	57.88	698	2.85**
	여성노인	442	55.22		
삶의 질	남성노인	258	2.99	698	2.37*
	여성노인	442	2.83		

*** p < .001, ** p < .01, * p < .05

□ 성별 심리적 특성 변화의 차이

-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노인의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이 변화된 정도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사이에 유의미한 집단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29> 성별 심리적 특성 변화의 차이

구분		n	M	SD	df	t
자아효능감 변화	남성노인	258	3.60	0.66	698	1.28
	여성노인	442	3.53	0.61		
우울 변화	남성노인	258	3.53	0.76	698	-0.56
	여성노인	442	3.56	0.73		
삶의 만족도 변화	남성노인	258	3.58	0.70	698	-1.34
	여성노인	442	3.65	0.67		
삶의 질 변화	남성노인	258	3.55	0.67	698	-0.57
	여성노인	442	3.58	0.63		

*** p < .001, ** p < .01, * p < .05

나. 연령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 현시점에서 연령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 자아효능감 : 60세-69세 이하가 16.85, 70세-74세 이하가 16.08, 75세 이상이 15.78의 순으로 유의미한 집단차이를 보임.
- 우울 : 60-69세 이하가 18.39, 70-74세 이하가 16.09, 75세 이상이 20.33으로 연령대가 높은 집단일수록 우울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는 : 60-69세 이하가 58.27, 70-74세가 55.65, 75세 이상이 53.78로 연령대가 높은 집단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삶의 질은 60-69세 이하가 3.00, 70-74세 이하가 2.86, 75세 이상이 2.76으로, 삶의 질 또한 연령대가 높은 집단일수록 삶의 질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0> 연령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60-69세	267	16.85	18.39	58.27	3.00
70-74세	266	16.09	19.33	55.65	2.86
75세 이상	167	15.78	20.33	53.78	2.76
ss(df)		36.85(2)	393.11(2)	2204.43(2)	5.83(2)
F		7.30***	5.68**	7.81***	3.92*

*** p < .001, ** p < .01, * p < .05

□ 연령별 심리적 특성 변화의 차이

- 자아효능감 : 일자리사업 참여 후 에서의 변화는 60-69세 이하가 3.64, 70-74세 이하가 3.51, 75세 이상이 3.50으로 연령대가 높은 집단일수록 변화의 정도 또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60-69세 이하의 자아효능감의 변화는 70-74세 이하 집단과 75세 이상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우울, 삶의 만족도, 삶의 질에서의 변화정도는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 연령별 심리적 특성 변화의 차이

		자아효능감 변화	우울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삶의 질 변화
60-69세	267	3.64	3.58	3.68	3.60
70-74세	266	3.51	3.53	3.59	3.55
75세 이상	167	3.50	3.54	3.59	3.55
ss(df)		3.02(2)	0.37(2)	1.31(2)	0.51(2)
F		3.87*	0.34	1.40	0.61

*** p < .001, ** p < .01, * p < .05

다. 교육수준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 현시점에서 교육수준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 자아효능감 : 대졸이상 노인의 자아효능감은 18.83, 고졸 노인은 17.49, 중졸이하 노인은 15.79의 순을 보였음.
- 우울 : 중졸이하 노인이 19.67, 고졸 노인이 18.33, 대졸이상 노인이 16.61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 : 대졸이상 노인이 66.66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고졸 노인이 60.36, 중졸이하 노인이 54.24로 가장 낮음.
- 삶의 질 : 대졸이상 노인이 3.61, 고졸 노인이 3.13, 중졸이하 노인이 2.75의 순을 보였음

<표 32> 교육수준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중졸이하	536	15.79	19.67	54.24	2.76
고졸	105	17.49	18.33	60.36	3.13
대졸이하	59	18.83	16.61	66.66	3.61
ss(df)		662.23(2)	592.79(2)	10344.75(3)	45.96(2)
F		38.43***	8.64***	39.95***	33.50***

*** p < .001, ** p < .01, * p < .05

□ 교육수준별 심리적 특성 변화의 차이

- 자아효능감 : 대졸이상 노인이 3.71로 가장 높은 변화정도를 보였으며, 뒤이어 고졸 노인이 3.64, 중졸이하 노인이 3.52로 나타났음
- 우울 : 중졸이하 노인이 3.58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며, 고졸 노인이 3.50, 대졸이상 노인이 3.3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삶의 만족도 : 대졸이상 노인이 3.73, 중졸이하 노인이 3.62, 고졸 노인이 3.60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만족도 변화정도에서의 집단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삶의 질 : 대졸이상 노인이 3.64, 중졸이하 노인이 3.56, 고졸 노인이 3.54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질에서의 변화 또한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3> 교육수준별 심리적 특성 변화의 차이

교육수준		자아효능감 변화	우울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삶의 질 변화
중졸이하	536	3.52	3.58	3.62	3.57
고졸	105	3.65	3.50	3.60	3.54
대졸이하	59	3.71	3.34	3.73	3.64
ss(df)		2.92(2)	3.46(2)	0.74(2)	0.41(2)
F		3.74*	3.17*	0.79*	0.49

*** p < .001, ** p < .01, * p < .05

라. 거주지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 현시점에서 거주지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 자아효능감 : 대도시가 16.40, 중소도시가 16.25, 농어촌이 16.21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거주지에 따른 자아효능감의 집단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우울 : 중소도시가 19.49, 대도시가 19.40, 농어촌이 18.26으로 농어촌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거주지에 따른 우울 또한 집단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 : 대도시가 57.13, 중소도시가 56.80, 농어촌이 53.15로 거주지역의 크기가 큰 집단일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Duncan 사후검증 결과 농어촌 거주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삶의 질 : 농어촌이 2.96, 중소도시가 2.93, 대도시가 2.81로 농어촌 거주노인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나, 거주지역에 따른 삶의 질에서의 집단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음.

<표 34> 거주지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대도시	279	16.40	19.40	57.13	2.81
중소도시	282	16.25	19.49	56.80	2.93
농어촌	139	16.21	18.26	53.15	2.96
ss(df)		4.50(2)	158.33(2)	1629(2)	2.60(2)
F		0.24	2.27	5.74**	1.74

*** p < .001, ** p < .01, * p < .05

□ 거주지별 심리적 특성 변화의 차이

- 우울 : 변화된 정도는 농어촌 노인이 3.65, 중소도시 노인이 3.62, 대도시 노인이 3.43으로, 농어촌 노인과 중소도시 노인의 변화정도가 대도시 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 : 중소도시가 3.70, 대도시와 농어촌이 각각 3.57로, 거주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변화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자아효능감과 삶의 질에서의 변화정도는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5> 주지별 심리적 특성 변화의 차이

		자아효능감 변화	우울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삶의 질 변화
대도시	279	3.59	3.43	3.57	3.56
중소도시	282	3.57	3.62	3.70	3.62
농어촌	139	3.47	3.65	3.57	3.49
ss(df)		1.43(2)	6.56(2)	2.94(2)	1.56(2)
F		1.82	6.07**	3.18*	1.88

*** p < .001, ** p < .01, * p < .05

마. 가구형태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 현시점에서 가구형태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 자아효능감 : 노인부부가구가 16.98, 자녀동거가 16.15, 기타가구가 15.81, 독거가 15.58로,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를 지닌 노인의 자아효능감이 가장 높은 반면, 혼자 사는 노인의 자아효능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우울 : 독거가 21.47, 기타가구가 20.44, 자녀동거가 18.71, 노인부부가 17.86의 순을 보였으며 가구형태에 따른 우울에서의 집단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 : 노인부부가 58.28, 자녀동거가 56.16, 기타가구가 54.15, 독거가 53.61로 가구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질 : 노인부부가 3.07, 자녀동거가 2.86, 기타가구가 2.74, 독거가 2.6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6> 가구형태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독거	195	15.58	21.47	53.61	2.68
노인부부	274	16.98	17.86	58.28	3.07
자녀동거	204	16.15	18.71	56.16	2.86
기타	27	15.81	20.44	54.15	2.74
ss(df)		239.40(3)	1582.75(3)	2604.23(3)	18.84(3)
F		8.64***	16.02***	6.17*	8.65***

*** p < .001, ** p < .01, * p < .05

□ 가구형태별 심리적 특성 변화의 차이

- 자아효능감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변화된 정도는 노인부부가 3.62, 자녀동거가 3.54, 독거가 3.52, 기타가구가 3.30으로 가구형태에 따라 자아효능감의 변화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질 : 변화된 수준은 노인부부가 3.63, 자녀동거가 3.57, 독거가 3.52, 기타가구가 3.2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서의 변화정도는 노인의 가구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가구형태별 심리적 특성 변화의 차이

		자아효능감 변화	우울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삶의 질 변화
독거	195	3.52	3.58	3.58	3.52
노인부부	274	3.62	3.54	3.69	3.63
자녀동거	204	3.54	3.55	3.60	3.57
기타	27	3.30	3.41	3.41	3.26
ss(df)		3.43(3)	0.79(3)	3.11(3)	3.95(3)
F		2.93*	0.48	2.22	3.19*

*** p < .001, ** p < .01, * p < .05

제6절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네트워크 효과 분석

1. 사업참여자 및 비참여자의 사회네트워크 특성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족관계 및 친구·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주관적 가족관계의 집단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친구 및 이웃관계의 경우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표 38> 사업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주관적 사회관계

구분		M	SD	df	t
주관적 가족관계	참여노인	3.92	0.57	529.36	1.58
	비참여노인	3.85	0.61		
주관적 친구 이웃관계	참여노인	3.99	0.51	508.98	2.88**
	비참여노인	3.88	0.57		

*** p < .001, ** p < .01, * p < .05

-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과 주고받은 사회적 지원 정도를 경제적 지원, 돌봄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측면¹⁾에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 정도를 비교해 보면 비참여 노인에 비해 참여노인이 경제적 지원의 제공량이 더 많은 반면 돌봄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경우 비참여노인의 평균이 소폭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경제적 지원의 양에서만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1) 경제적 지원은 현금과 현물의 이전을 의미하며 돌봄 지원에는 간병 및 수발, 손자녀 돌보기 등 돌봄 영역에서의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도구적 지원은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 시장보기, 교통편의 제공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정서적 지원은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담 등과 같이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각 영역별 지원을 주고 받은 양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또는 참여하지 않고 대기상태로 있었던) 지난 6개월간 각 영역별 지원의 금액 또는 빈도로 측정하였다.

<표 39> 사업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사회적 지원 제공정도 비교

구분		M	SD	df	t
경제적 지원	참여노인	1.09	7.45	885.39	2.40*
	비참여노인	0.37	1.94		
돌봄 지원	참여노인	0.31	1.49	435.12	-1.40
	비참여노인	0.50	2.09		
도구적 지원	참여노인	0.17	1.45	998	-0.73
	비참여노인	0.18	1.36		
정서적 지원	참여노인	0.30	1.35	998	-0.18
	비참여노인	0.32	1.39		

*** p < .001, ** p < .01, * p < .05

<표 40> 사업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사회적 지원 수혜정도 비교

구분		M	SD	df	t
경제적 지원	참여노인	19.19	29.13	998	0.28
	비참여노인	18.67	20.78		
돌봄 지원	참여노인	0.08	0.74	998	-0.15
	비참여노인	0.08	0.75		
도구적 지원	참여노인	0.67	2.83	767.40	2.15*
	비참여노인	0.33	2.05		
정서적 지원	참여노인	0.51	1.68	998	-0.37
	비참여노인	0.55	1.73		

*** p < .001, ** p < .01, * p < .05

□ 사회적 지원 수혜정도 역시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지난 6개월간 도구적 지원의 경우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참여 노인의 사업참여 후 돌봄지원을 받는 정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한 반면 정서적 지원을 받는 정도는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사업 참여 후 돌봄의 제공 정도는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표 41> 사업참여노인의 사업 참여 전후 사회적 지원 수혜의 양적 변화

구분		M	SD	df	t
경제적 지원	참여전	19.42	31.52	699	-269
	참여후	19.19	29.13		
돌봄 지원	참여전	0.12	0.74	699	-2.173*
	참여후	0.08	0.91		
도구적 지원	참여전	0.65	2.70	698	0.404
	참여후	0.67	2.83		
정서적 지원	참여전	0.44	1.57	699	2.5*
	참여후	0.51	1.68		

*** p < .001, ** p < .01, * p < .05

<표 42> 사업참여노인의 사업 참여 전후 사회적 지원 제공의 양적 변화

구분		M	SD	df	t
경제적 지원	참여전	1.19	7.62	699	-1.115
	참여후	1.09	7.45		
돌봄 지원	참여전	0.18	1.04	699	3.33***
	참여후	0.31	1.49		
도구적 지원	참여전	0.13	1.33	699	1.381
	참여후	0.16	1.45		
정서적 지원	참여전	0.25	1.24	699	1.78
	참여후	0.30	1.35		

*** p < .001, ** p < .01, * p < .05

- 사업 참여 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비동거자녀, 친척, 친구와 접촉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빈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비참여노인에 비해 참여노인이 비동거자녀, 친척, 친구 등과 만나는 빈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참여노인의 경우 참여노인에 비해 자녀, 친척등과 연락을 주고 받는 빈도가 높게 나타남
- 이 가운데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친구접촉 빈도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친구와 만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 사업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자녀(비동거), 친척, 친구와 접촉 및 연락빈도 비교

구분		M	SD	df	t
자녀 접촉	참여노인	4.53	1.91	996	0.67
	비참여노인	4.44	1.81		
자녀 연락	참여노인	6.23	2.25	998	-0.33
	비참여노인	6.28	2.16		
친척 접촉	참여노인	3.37	1.50	997	0.78
	비참여노인	3.29	1.56		
친척 연락	참여노인	3.99	1.60	998	-0.49
	비참여노인	4.04	1.66		
친구 접촉	참여노인	7.57	1.80	998	2.07*
	비참여노인	7.30	1.98		
친구 연락	참여노인	7.24	1.77	998	0.87
	비참여노인	7.13	1.76		

*** p < .001, ** p < .01, * p < .05

□ 사업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친목단체,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스포츠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이익단체 및 정치단체, 봉사단체, 학습단체에 대한 참여 정도를 비교해 보면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여러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참여노인의 경우 연평균 단체활동 참여 일수가 29.4일인 반면 비참여노인의 경우 23.3일) 양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 사업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사회단체 활동 정도

구분		M	SD	df	t
사회단체 활동	참여노인	29.40	40.73	697.97	2.51*
	비참여노인	23.30	32.65		

*** p < .001, ** p < .01, * p < .05

<표 45> 사업유형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적 지원 제공 정도

		경제적 지원	돌봄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지원
사업유형별(참여노인만 해당)	공익형	0.42	0.37	0.22	0.35
	복지형	0.52	0.42	0.21	0.25
	교육형	2.50	0.41	0.16	0.45
	사업형	0.24	0.21	0.05	0.13
	F	6.43***	0.62	0.57	2.12

- 사업 유형별로 사회적 지원의 제공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의 정도에 있어서 교육형이 타 사업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원의 경우 사업유형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사업유형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적 지원 수혜 정도

		경제적 지원	돌봄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지원
사업유형별(참여노인만 해당)	공익형	18.50	0.09	0.69	0.49
	복지형	16.73	0.10	0.49	0.54
	교육형	23.36	0.02	0.47	0.72
	사업형	18.05	0.08	0.59	0.30
	F	2.68*	0.56	0.45	2.04

<표 47> 비동거자녀, 친척, 친구·이웃과의 접촉 빈도

		자녀	친척	친구
사업유형별(참여노인만 해당)	공익형	4.47	3.11	7.56
	복지형	4.58	3.67	7.43
	교육형	4.37	3.31	7.44
	사업형	4.65	3.46	7.50
	F	0.94	6.79***	0.28

<표 48> 자녀, 친척, 친구·이웃과의 연락 빈도

		자녀	친척	친구
사업유형별(참여노인만 해당)	공익형	6.14	3.77	7.10
	복지형	6.16	3.99	7.24
	교육형	6.43	4.29	7.36
	사업형	6.32	4.11	7.20
	F	0.96	4.98**	0.97

- 비동거자녀, 친척,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 및 연락빈도에 있어서 사업유형간 친척과의 연락 및 접촉 빈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접촉 빈도에 있어서는 복지형 사업 참여자와 사업형 참여자들이 타 집단에 비해 친척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연락빈도에 있어서는 교육형 사업 참여자들의 빈도가 타 사업유형 참여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사회단체 참여정도 역시 사업유형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형 사업 참여자가 타 집단에 비해 여러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육형, 사업형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교육형과 복지형 사업 참여자들이 사회네트워크의 양이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이며 사회네트워크의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공익형 사업참여자들로 보인다.

<표 49> 사회단체 참여정도 비교

		사회단체 참여정도
사업유형별 (참여노인만 해당)	공익형	21.84
	복지형	34.65
	교육형	30.94
	사업형	24.96
	F	6.06***

제7절 노인일자리사업의 건강효과 분석

- 건강 및 의료부문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이 참여노인의 건강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 크게 참여 및 비참여노인의 건강상태, 의료비 지출 유형 및 수준, 건강관련 행태 등을 비교하고, 참여자의 경우에는 사업유형이나 개인특성에 따라 이러한 건강수준, 의료비 지출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함.
- 건강수준 지표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보유 및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건강관련 행태 지표는 일상적인 활동량, 흡연 및 음주여부, 규칙적 운동실천 여부, 규칙적 건강식품 복용여부를 통해 살펴봄.

1. 사업참여 노인의 건강수준 : 비참여 노인과의 비교

- 사업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지난 6-7개월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동년배에 비해 자신이 건강하고 평가한 비율이 53.9%였으나, 비참여노인의 경우는 45.0%에 머물렀음. 이러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각종 암,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의 주요 질환에 대해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며, 3개월 이상 앓고 있음을 기준으로 만성질환 보유를 정의하였을 때, 전체 노인의 68.3%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참여노인의 경우 66.0%, 비참여노인의 경우 73.7%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 개수의 경우는 참여노인이 1.614개, 비참여노인이 1.570개로 참여노인의 경우가 약간 많은 것으로, 만성질환 보유기간의 경우에도 참여노인은 8년 4개월, 비참여노인은 8년 정도로 나타나 참여노인의 만성질환 보유기간이 약 4개월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사업참여노인의 66.0%는 평균 1.6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이러한 만성질환을 보유한 기간도 8년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특성은 비참여노인의 만성질환 보유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욕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일자

리사업 참여여부가 실제 이들 집단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패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50〉 사업참여 노인의 건강수준

(단위 : 명, %, 개, 개월)

		참여노인 (700명)		비참여노인 (300명)		전체	
주관적 건강	건강함	377	53.9	135	45.0	512	51.2
	건강하지 않음	323	46.1	165	55.0	488	48.8
만성질환 보유여부	만성질환 있음	462	66.0	221	73.7	683	68.3
	만성질환 없음	238	34.0	79	26.3	317	31.7
만성질환 특성	만성질환 개수	1.61	.868	1.57	.809	1.600	.849
	만성질환 보유기간	100.40	81.02	96.75	86.77	99.22	82.87

- 사업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유의미하게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만성질환 개수는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하여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만성질환 보유기간 또한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하여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 사업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건강상태

구분		n	M	SD	df	t
건강상태	참여노인	700	3.40	0.83	998	2.09*
	비참여노인	300	3.28	0.82		
만성질환 개수	참여노인	700	1.17	1.10	998	-1.28
	비참여노인	300	1.27	1.04		
만성질환 보유기간	참여노인	700	94.06	128.36	998	-0.28
	비참여노인	300	96.47	121.75		

*** p < .001, ** p < .01, * p < .05

- 사업유형에 따른 노인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교육형의 노인건강상태가 3.68로 가장 좋고, 복지형이 3.31, 사업형이 3.27, 공익형이 3.25로, 교육형 참여노인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고 공익형 참여노인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에 따른 만성질환 개수를 살펴보면, 공익형이 1.17개, 복지형이 1.31개, 사업형이 1.13개, 교육형이 0.85개로 나타나, 공익형 참여 노인이 가장 많은 만성질환 개수를 보유하고 있고, 교육형 참여 노인이 가장 적은 만성질환 개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에 따른 만성질환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공익형이 106.80개월, 복지형이 98.98개월, 사업형이 84.27개월, 교육형이 78.79개월로 나타나, 공익형 참여 노인이 가장 긴 만성질환 기간을 보유하고 있고, 교육형 참여 노인이 가장 짧은 만성질환 기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 사업유형에 따른 노인의 건강상태

구분		n	M	SD	df	F
건강상태	공익형	350	3.25	0.86	3	14.48***
	교육형	221	3.68	0.76		
	복지형	261	3.31	0.83		
	사업형	168	3.27	0.77		
만성질환 개수	공익형	350	1.38	1.17	3	12.63***
	교육형	221	0.85	0.90		
	복지형	261	1.31	1.10		
	사업형	168	1.13	0.96		
만성질환 보유기간	공익형	350	106.80	131.21	3	2.73*
	교육형	221	78.79	129.17		
	복지형	261	98.98	124.10		
	사업형	168	84.27	113.11		

*** p < .001, ** p < .01, * p < .05

2. 사업참여 노인의 건강행태 : 비참여 노인과의 비교

- 개인의 건강수준이나 의료이용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건강관련 행태의 측면에서 사업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흡연 및 음주여부,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지 여부, 규칙적으로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지 여부 등에서는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특히 동년배에 비해 일상적인 활동량이 많은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사업참여노인의 51.9%가 동년배에 비해 활동량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비참여노인의 경우는 37.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즉,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참여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에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변화를 주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변화가 건강수준이나 의료비 지출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표 53> 사업참여 노인의 건강상태

(단위 : 명, %)

		참여노인 (700명)		비참여노인 (300명)		전체	
흡연여부	흡연	62	8.9	38	12.7	100	10.0
	비흡연	638	91.1	262	87.3	900	90.0
음주여부	음주	198	28.3	89	29.7	287	28.7
	비음주	502	71.7	211	70.3	713	71.3
규칙적운동여부	규칙적운동실천	276	39.4	121	40.3	397	39.7
	운동안함	424	60.6	179	59.7	603	60.3
규칙적건강식품 복용여부	건강식품복용	120	17.1	46	15.3	166	16.6
	복용안함	580	82.9	254	84.7	834	83.4
일상적 활동량	많음	363	51.9	111	37.0	474	47.4
	많지 않음	337	48.1	189	63.0	526	52.6

3. 참여노인의 참여사업 유형별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의 차이

- 사업참여 노인의 참여사업 유형별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특히 교육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보유여부로 측정한 건강수준 지표에서 다른 유형 참여노인에 비해 건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정도는 공익형 일자리 참여노인이 73.4%로 가장 높고 교육형 일자리 참여노인이 48.1%로 가장 낮음.

<표 54> 참여노인의 참여사업 유형별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의 차이

(단위 : 명, %)

	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보유여부				일상적활동량				합계	
	동년배에 비해 건강함		건강하지 않음		있음		없음		동년배에 비해 많음		동년배에 비해 적음			
공익형	123	50.4	121	49.6	179	73.4	65	26.6	102	41.8	142	58.2	244	100.0
교육형	109	70.8	45	29.2	74	48.1	80	51.9	108	70.1	46	29.9	154	100.0
복지형	95	52.2	87	47.8	128	70.3	54	29.7	91	50.0	91	50.0	182	100.0
시장형	50	41.7	70	58.3	81	67.5	39	32.5	62	51.7	58	48.3	120	100.0
전체	377	53.9	323	46.1	462	66.0	238	34.0	363	51.9	337	48.1	700	100.0

4.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요인 간 관계

- 사업참여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성별에서는 사업참여 노인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동년배에 비해 건강하며, 활동량이 많고, 만성질환도 덜 보유하는 특성을 보임
- 다음으로 사업참여 노인 중 60대 연령의 노인의 경우는 동년배에 비해 건강하다고 판단한 비율이 40% 정도로 비교적 낮은 반면, 70대 이상 연령의 노인의 경우는 동년배에 비해 건강하다고 판단한 비율이 50%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만성질환 보유의 측면에서는 60대 노인에 비해 70대 이상 노인에게서 만성질환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 측면에서는 대도시 노인이 중소도시나 농어촌 거주 노인에 비해 일상적 활동량이 많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이며, 만성질환 보유에서는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만성질환 보유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이상 학력의 노인과 고졸이하 학력의 노인의 건강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졸이상 학력의 노인의 경우 일상적인 활동량도 많은 것으로 확인됨.
-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가구의 노인의 경우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러한 사업참여 노인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를 분리하여 확인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사업참여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이와 관련한 건강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향후 각 집단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연계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임.

<표 55>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요인 간 관계

(단위 : 명, %)

구분		주관적건강		만성질환 보유여부		일상적활동량		전체
		건강함	그렇지 않음	있음	없음	많음	그렇지 않음	
성별	남성	171	87	149	109	151	107	258
		66.3	33.7	57.8	42.2	58.5	41.5	100.0
	여성	206	236	313	129	212	230	442
		46.6	53.4	70.8	29.2	48.0	52.0	100.0
연령대	60-69세	108	159	148	119	151	116	267
		40.4	59.6	55.4	44.6	56.6	43.4	100.0
	70-74세	135	131	195	71	132	134	266
		50.8	49.2	73.3	26.7	49.6	50.4	100.0
	75세 이상	80	87()	119	48	80	87	167
		47.9	52.1	71.3	28.7	47.9	52.1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145	134	171	108	159	120	279
		52.0	48.0	61.3	38.7	57.0	43.0	100.0
	중소도시	160	122	203	79	134	148	282
		56.7	43.3	72.0	28.0	47.5	52.5	100.0
	농어촌	72	67	88	51	70	69	139
		51.8	48.2	63.3	36.7	50.4	49.6	100.0
교육 수준	중졸이하	241	253	348	146	241	253	494
		48.8	51.2	70.4	29.6	48.8	51.2	100.0
	고졸	77	28	58	47	68	37	105
		73.3	26.7	55.2	44.8	64.8	35.2	100.0
	대학이상	43	16	27	32	38	21	59
		72.9	27.1	45.8	54.2	64.4	35.6	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88	107()	144	51	96	99	195
		45.1	54.9	73.8	26.2	49.2	50.8	100.0
	노인부부	169	105	161	113	154	120	274
		61.7	38.3	58.8	41.2	56.2	43.8	100.0
	자녀동거	102	102	139	65	96	108	204
		50.0	50.0	68.1	31.9	47.1	52.9	100.0
	기타	18	9	18	9	17	10	27
		66.7	33.3	66.7	33.3	63.0	37.0	100.0
계		377	323	462	238	363	337	700

제8절 노인일자리사업의 거시적 효과 : 공공부문 일자리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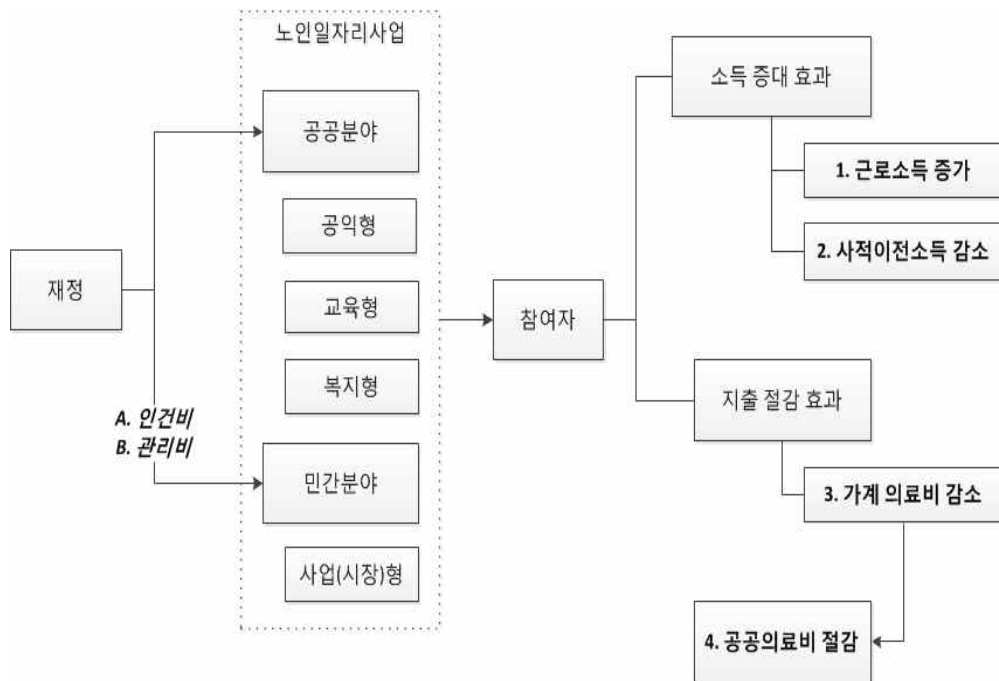
- 정부정책이 사회 총후생수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각각 평가하여 대안의 비교를 수행하는 분석활동
 -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며,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일환
 -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각각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
-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평가 기법으로 활용 가능
 - program이나 정책의 범위 보다 개별사업을 분석, 평가하는데 초점을 둠
 -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또는 예상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개별사업의 개선이나 발전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활용

1.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비용·편익분석의 방법과 기준
 - 노인일자리사업은 자본투자적 성격이 아닌 경상비 성격의 재정지출 사업으로,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음
 - 편익은 사업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에 근거하여 도출하며,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비시장적 접근이 유용
 - 분석의 대상과 범위
 - 분석대상은 사업참여 전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전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신규참여자를 대상으로 단년도 기간으로 한정하고, 따라서 사업의 누적효과 분석은 제외됨
 - 분석은 일자리사업의 유형별로 분석하며 공공부문의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과 민간부문의 사업(시장)형으로 구분
 - 분석 기준은 비용·편익 비율(benefit-cost ratio)
 - 신규참여자를 대상으로 단년도의 편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몰비용에 대한 투자회수(비용분제)기간, 순현재가치 등은 적절한 기준이 아님
 - 또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의 목표가 이윤창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내부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기 어려움

□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징과 비용·편익의 내용

- 사업의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그림 1의 A, B)
- 비용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와 부대경비(관리비)로 구성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소득보장의 보완적 제도이며, 따라서 사업의 편익은 참여자의 근로소득 증가 효과가 핵심
 - 근로소득 증가(1) : 일자리사업의 근로소득과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
 - 참여자의 근로소득 증가는 자녀, 형제 등의 금전적 지원인 사적이전소득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소득효과(2)로 간주할 수 있음
 - 일상적인 활동량 증가와 건강상태의 호전으로 의료비 지출의 감소가 예상되며, 의료비 감소효과는 가계 지출 부분(3)과 건강보험 재정지출 부분(4)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2>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과 편익

2. 분석결과

□ 비용

-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로 2011년의 사업비(인건비+부대경비)를 참여자 1인당으로 환산
 - 분석은 2011년 신규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 역시 같은년도로 함. 따라서 비용은 집행 혹은 결산예산이 아니라 계획예산임

- 참여자 인원수는 사업량의 개념을 이용하는데, 사업량이란 공공부문의 경우 7개월, 민간부문의 경우 12개월을 지속한 경우를 의미
 - 현재 참여인원, 누적 참여인원 등은 참여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항목으로 이를 근거로 1인당 비용 계산은 적절하지 않음
- 1인당 월평균 비용은 공공부문이 약 13만원, 민간부문이 11만원 수준
 - 공공부문 일자리는 매달 20만원씩 7개월 동안 지급되므로 평균 11.7만원/월 수준이며 민간부문은 12개월 동안 지급되나 금액이 적어 평균 8.4만원 수준임
 - 인건비 이외에 사업관리를 위한 부대경비가 추가됨

<표 59>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인원 및 예산규모

사업유형	인원(명)	예산(천원)		
		합계	인건비	부대경비(관리비)
공익형	129,288	198,348,302	183,289,355	15,058,948
교육형	20,193	31,420,651	28,728,557	2,692,094
복지형	45,508	70,435,561	64,042,093	6,393,468
사업형(시장형)	11,928	15,498,979	12,011,647	3,487,333

<표 60> 노인일자리사업의 1인당 비용

(단위 : 원, 월)

사업유형	합계	인건비	부대경비
공익형	127,847	118,140	9,706
교육형	129,668	118,558	11,110
복지형	128,980	117,273	11,708
사업형(시장형)	108,281	83,918	24,364

□ 편익

○ 소득효과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의 근로(사업)소득 변동을 보면 사업형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복지형, 교육형, 공익형의 순이며, 규모는 월평균 약 17만에서 14만원 수준임
- 사적이전소득의 변동은 월평균 교육형이 9,960원, 공익형이 2,2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형과 복지형이 각각 8,330원, 복지형 140원이 증가함

<표 61> 노인일자리 참여 전후의 사업유형별 소득변동

(단위 : 원, 월)

사업유형	근로(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익형	143,920	-2,200
교육형	151,290	-9,960
복지형	160,240	140
사업형	174,650	8,330

○ 의료비 효과

- 의료비 변동 효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비 자료로 추후 계산
-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추정하면 의료비는 소폭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이는 참여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됨

<표 6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련 상태의 변화

	M	SD	문항내용
건강상태 변화	3.37	0.60	1=매우 나빠졌다, 5=매우 좋아졌다
일상적 활동량	3.61	0.58	1=매우 감소하였다, 5=매우 증가하였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	3.14	0.97	1=매우 감소하였다, 5=매우 증가하였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4.38	2.48	1=매우 감소하였다, 5=매우 증가하였다

□ 비용·편익 비율

- 소득효과를 편익으로 하는 비용·편익비율은 사업형이 가장 높고, 공익형이 가장 낮은 수준
- 비용편익비율은 사업형이 1.54배, 교육형과 복지형이 1.24배, 그리고 공익형이 1.14배
- 근로소득변동만을 고려하면 사업형이 1.61배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복지형 1.24배, 교육형 1.17배, 공익형 1.13배의 순임

<표 63>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 비용·편익 비율

	소득효과	
	근로소득	근로+사적이전소득
공익형	1.13	1.14
교육형	1.17	1.24
복지형	1.24	1.24
사업형(시장형)	1.61	1.54

III 결론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첫째, 참여노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 참여노인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규모가 56%에 이를 만큼 저소득노인으로 집중되어 있음. 이들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상대적 박탈감도 큰 것으로 보임.
 - 둘째, 참여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후에 긍정적인 소득개선 효과를 보였음.
- 참여자 집단이 가구소득은 물론 개인소득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인 반면에 비교집단은 오히려 개인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참여자 집단에서 참여 전후의 가구소득 비교시 나타난 월평균 18만원 정도의 소득증가는 참여자 대부분이 받고 있는 급여액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참여소득은 -14.7%의 가구소득 빈곤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심리적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사업 참여노인이 자아효능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등 심리적 제 측면에서 비참여노인보다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유형 별로는 교육형사업의 참여노인이 심리적 건강상태가 가장 높은 반면 공익형 사업 참여노인의 심리적 건강상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사업 참여 후 변화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변화 크기와 종류에 차이가 있었음. 가령 연령이 낮은 연소노인일수록 자기효능감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만 여타 심리적 영역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변화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사회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사업참여노인의 경우 비참여노인에 비해 가족관계 또는 친척 관계와 같이 혈연관계에서의 사회네트워크 효과 보다 친구 및 이웃관계와 같이 비혈연 네트워크의 증가 경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남

- 사회적 지원을 주고받은 양에 있어, 비참여 노인에 비해 참여노인이 경제적 지원의 주고받음이 더 많이 나타나는 반면 돌봄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경우 비참여노인의 평균이 소폭 높게 나타났남
 - 사업참여노인의 사회네트워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효과는 사회단체 활동량에 있어 비참여노인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
 - 종합해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네트워크 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보다 엄밀한 평가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과 분석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음
- 건강측면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업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사업참여노인의 경우 66.0%, 비참여노인의 경우 73.7%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동년배에 비해 일상적인 활동량이 많은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사업참여노인의 51.9%가 동년배에 비해 활동량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비참여노인의 경우는 37.0%가 그렇다고 응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즉,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참여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에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변화를 주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변화가 건강수준이나 의료비 지출 변화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제2절 정책적 함의

-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표 명확화 : 경제적 목적 + 비용절감(건강) + 삶의 질 향상
-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는 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인층의 소득보전효과와 건강효과를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됨
 - 그러나 본 분석 결과 경제적이거나 비용절감의 효과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 심리적 만족 및 사회네트워크 수준의 향상과 같은 비경제적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이러한 다양한 목표가 묘하게 혼재되어 있음. 경우에 따라 혼선을 초래하기도 함

- 노인일자리 사업의 장기적 목적을 경제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노년기 소득보장의 보조적 수단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참여의 기능에 둘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회참여형 일자리와 소득보장형 일자리 등으로 구분해 사업 운영 필요
- 소득보장형 일자리의 경우 보다 내실있게 노인층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며 사회참여형 일자리의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특성에 맞추어 보다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적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의 모색이 필요함

□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수준의 조정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의 심리적, 사회네트워크적 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수의 노인층은 경제적 욕구가 큰 상태. 따라서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급여수준 조정 필요
 - 첫째, 2006년도에 기존의 5개월 혹은 6개월 참여기간을 7개월로 연장한 이래로 급여수준을 바꾸고자 하는 직접적인 노력은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구성된 공공분야 일자리의 급여수준을 물가상승 폭에 맞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민간분야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통해 연중 내내 소득확보가 가능해야 하지만 여기에 속한 대다수 사업은 현실적으로 소득수준 및 소득안정성 측면에서 공공분야 보다 우월하다고 보기가 어려움. 따라서 민간 시장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수익창출을 높일 수 있는 사업부문을 개발하는 노력과 더불어 이에 필요한 사업기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기반 조성에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됨.

□ 사업 기간의 유연화

-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여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득효과에 의한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다는 것은 일자리 사업의 확대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현재의 비용구조상 양적확대는 사업의 비용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의 시장형의 비용-편익비율이 높은 것은 공공부문은 기간이 7개월로 제한되는 반면, 시장형은 연중 지속되기 때문임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완적 제도라는 점에서 사업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비용-편익의 관점에서도 타당한 정책적 선택임.

기조
강연

100세 시대 고령자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세 시대 고령자 사회참여와 자원봉사²⁾

남 기 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게 제기되곤 한다. 이에 몇 가지의 맥락이 있다. 첫째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의 연장에 따라 이들이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은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 등 고령자의 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고령층에 대한 활동이론이나 지속이론, 교환이론 등 대표적인 이론체계에서는 공히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활동이 이들에게 긍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구성의 변화를 감안할 때, 고령층의 사회적 활동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과거보다 훨씬 인적자본이 우수한 인력이 고령층에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년 이후 이들의 사회활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고령층의 사회참여는 점차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는 새로마지 플랜과 2기 종합계획에서도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사회참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정책 프로그램들도 부처별로 산만하고 종합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정책 프로그램이나 추진체계별로 마찰적 지점이나 갈등요소도 상존하고 있다.

사회참여는 사실상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직업활동 등 주된 소득을 위한 경제적 활동 역시 사회참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 취미오락과 관련된 활동 역시 사회참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참여와 관련된 논의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자체로 매우 폭넓은 인력활용계획과 중첩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령층의 고

2) 본 원고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00세 포럼에서 고령자 사회참여에 관한 발표를 위해 작성되었던 것을 토대로 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용문제나 소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문화여가활동과 관련된 논의는 본 ‘100세 시대 대비 고령포럼’의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고령자의 고용 및 노동시장 문제 전반이나 문화여가활동의 부분은 논외로 한다.

따라서 본고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특히 고령자 자원봉사활동과 사회공헌형 성격을 가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부분에 대해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일견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여겨져, (비경제적)사회참여 활동의 핵심적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현재 실제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과 노인 자원봉사활동 영역 간 많은 중첩과 정책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논의에서는 현재 연간 20만개에 이르는 노인일자리사업 특히 그 중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것이 되기 어렵다. 때문에 고령자 자원봉사활동과 공익형 사업을 포함한 공공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는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인 고령층이 맞닥뜨리게 되는 ‘경제적 여건’이 활동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요인이 된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II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동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일상적으로 이야기되곤 한다. 강창범(2006)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비참여노인과 비교하여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경아(2000)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안녕감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고령층의 자원봉사나 사회참여가 가져오는 유익은 여러 연구에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유익성은 사회전체적인 인력활용, 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 건강의 증진, 사회관계 개선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다. 대개의 연구에서 사회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와 참여하지 않는 고령자의 비교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다 세부적인 비교를 수행한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김미령(2006)의 연구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연령과 사회참여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기노인에게는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후기노인에게는 오히려 사회참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주경희(2010)는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고령자들만을 초점으로 하는 분석에서 사회참여활동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몰입정도, 사회참여활동의 유형에 따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사회참여가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주경희, 2010).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특징과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자원봉사 영역에서도 과거와는 달라진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는 중요한 지적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교육수준, 사회적 경험, 경제활동 수준, 건강상태 등 인적 자본 수준이 월등히 우수하다. 때문에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들의 욕구에 맞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63.9%가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비경제적 사유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41.5%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발전, 여가선용을 위한 일자리 희망비율이 높다. 사실 이는 경제적인 일자리의 희망이 아니라 사회참여 욕구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년기 퇴직 후에 특별히 돈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륜과 경험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되는데, 베이비붐 세대 노년기 진입 이후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체계나 자원봉사단체의 육성 등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가지는 향후 봉사활동에 대한 욕구와 전망이 노년기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년기 퇴직 후 경제적 상황이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현재의 소망대로 자신이 가진 경험을 살려 사회공헌적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즉, 적절한 경제적 생활에 대한 안전망이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한다.

현재 고령층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건강문제보다 더 높은 빈도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특히 도시지역, 전기 고령층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불비한 우리나라의 현 세대 고령층에게서는 익히 예측할 수 있는 조사결과이기도 하다.

<표 1> 고령층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전체	경제적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사회에서의 경로 의식 약화	일상 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 시설 부족	기타
2007		100.0	40.1	3.8	5.3	40.7	3.2	0.3	2.1	0.7	2.9	0.9
2009		100.0	42.6	3.3	6.0	37.2	3.8	0.1	2.2	1.1	2.5	1.2
지역	동부	100.0	43.6	4.2	6.9	34.0	4.1	0.1	2.4	1.0	2.6	1.0
	읍면부	100.0	40.1	1.0	3.9	44.6	3.3	0.2	1.7	1.3	2.2	1.7
성	남자	100.0	42.6	5.2	6.8	33.6	2.7	0.2	3.8	0.7	2.9	1.4
	여자	100.0	42.5	1.8	5.4	39.9	4.7	0.1	1.0	1.4	2.2	1.1
연령	60~64세	100.0	45.6	6.4	6.8	29.4	2.4	0.1	3.6	1.6	2.5	1.7
	65~69세	100.0	43.8	3.8	6.9	34.9	3.1	0.2	2.6	0.9	3.0	0.8
	70~79세	100.0	40.6	1.3	5.2	42.5	4.5	0.2	1.4	0.8	2.2	1.2
	80세이상	100.0	37.6	0.1	4.1	46.8	7.4	-	0.1	1.2	2.0	0.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9.

이에 따라 원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압도적인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높은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일반적 특성별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적 우선순위(2008년 기준)

			소득 보장	일자리 지원	가사 지원	건강 증진	요양 보호	평생 교육	문화 여가	세대간 교육 및 홍보	교통 및 주거	기타	(명)
1순위	전체	65세 이상	69.9	9.8	3.4	7.5	4.5	0.4	1.9	0.3	1.7	0.6	(10,716)
		60세 이상	67.7	12.1	3.1	7.5	4.7	0.4	2.1	0.4	1.6	0.5	(15,059)
2순위	전체	65세 이상	10.8	23.7	12.5	15.8	19.1	1.1	6.9	1.1	8.4	0.5	(10,528)
		60세 이상	11.1	25.9	11.2	15.9	17.8	1.2	7.4	1.2	7.9	0.4	(14,817)

주 1) 1순위는 전체 15,146명 중 무응답자 87명을 제외하였고, 2순위는 전체 15,146명중 2순위 응답자 14,817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2009.

2008년에 이루어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 일반 노인의 경우에 미취업 노인의 32.2%, 취업노인의 90.2%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과 용돈마련 등 경제적 사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과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특히 고령층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을 살펴보면 일반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을 기준

으로 약 18.6%,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6.8%인데 비해 노인가구는 시장소득 기준 58.3%, 가처분소득 기준 48.3%에 이른다. 노인 가구 둘 중 하나가 빈곤한 상황이다. 더구나 해가 갈수록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표 3> 일반 가구와 노인가구의 빈곤율

구분	전체 가구 빈곤율		노인 가구 빈곤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2006	18.0	16.3	54.3	45.9
2007	18.2	16.4	55.0	46.4
2008	18.2	16.3	55.1	46.7
2009	18.6	16.8	58.3	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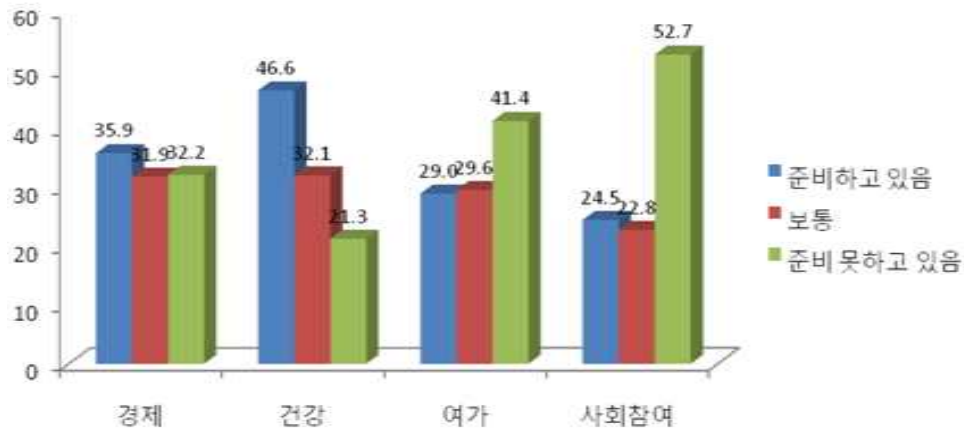
문제는 이러한 노년기 빈곤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시점에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안전망 기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기타의 공공부조나 노인복지서비스 역시 급격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령층의 인적자본과 경제활동 경험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크게 신장되지만, 이것이 경제활동이나 소득에 대한 보장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미국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란 1947~49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683만명)로 2007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한 집단을 일컫는다. 한편,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6~6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7,700만명)를 말하며 총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와 일본이나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력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미국,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와는 달리 심각한 노후소득보장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박덕배(2005)³⁾에 의하면 총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일본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12.7%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총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베이비붐 세대들은 미국 전체 자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2004년 기준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미국 3.82, 일본 3.63, 한국 1.96으로 나타나 개인금융자산의 건전성 면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중앙일보와 피델리티 자산운용회사가 공동 조사한 한국·일본 간의 노후 대비책에 따르면, 일본은 ‘저축 안 함’이 21.4%이지만 우리는 무려 46.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3) 세부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베이비 붐 세대(1955~63), 노후 대책 막막하다”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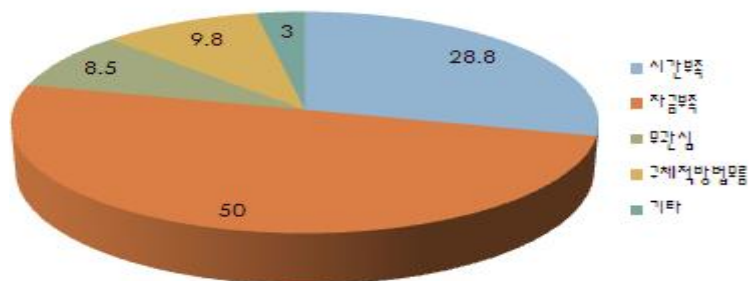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으로 저축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매일경제와 TNS코리아가 전국 베이비붐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은퇴를 앞둔 이들은 보유자산과 노후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순보유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가 50.9%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0.1%, 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다. 또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자가 75.3%에 달했으며, 은퇴할 때까지 축적 가능한 노후자금이 노후대비에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76.6%에 이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조사결과(2009)를 살펴보면 노후준비, 특히 경제적 노후준비의 부분에서는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과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참여나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양상과도 관련될 수 있다.



<그림 1>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노후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역시 가장 크게는 경제적 여건과 관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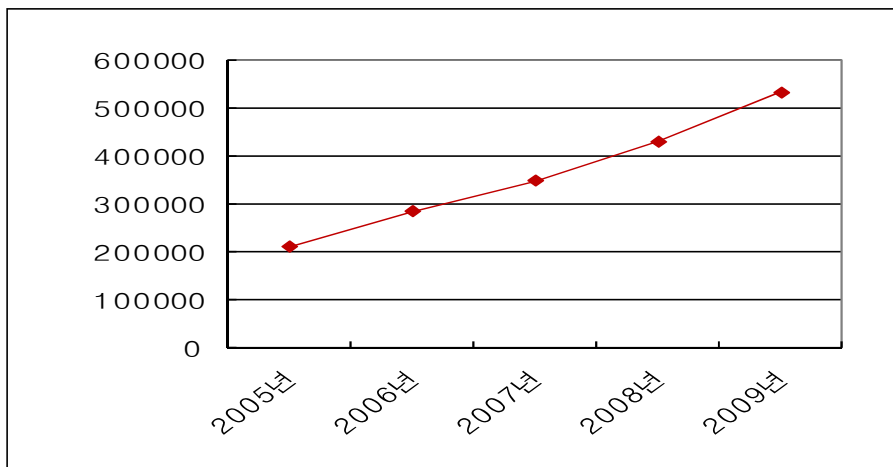
<그림 2> 노후 미준비 이유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 이들은 과거 노인세대보다 훨씬 인적자본 수준이 높고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의 동기를 많이 가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보다, 이들이 현 세대 노인과 유사하게 빈곤에 시달려 비경제적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소득지향적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고령층의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정책에서 감안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현재의 경향처럼 노인봉사단의 조직화, 정보의 제공과 연결체계에만 집중해서는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III 고령자 자원봉사와 사회참여

자원봉사와 사회참여 활동은 대상과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참여주체에게도 많은 이득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되곤 한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곤 한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소위 ‘추진체계’, ‘관리체계’, ‘지원체계’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는 고령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자원봉사 추진체계 및 관리체계의 핵심은 시군구별로 편성된 지역자원봉사센터로 설정되어 있다. 이 체계의 등록 자원봉사자 자료를 통해서 보면,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크게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 자원봉사센터의 노인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 추이¹⁾

** 출처 : 행정안전부.

그러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의 경우 1991년에 3.8%였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09년에 7.0%가 되었다. 65세 이상은 1999년에 5.4%였던 것이 2009년에도 유사한 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기 15세 이상 전체 인구층 자원봉사활동 비율이 5.4%에서 19.3%로 높아진 것⁴⁾에 비하면 그다지 활성화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표 4> 연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구분	1991	1999	2003	2006	2009
전체 (15세 이상)	5.4	13.0	14.6	14.3	19.3
60세 이상	3.8	6.7	6.7	6.5	7.0
65세 이상	-	5.4	5.6	5.3	5.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이러한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구국가에서는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전체 인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와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전체 인구층 참여율과의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크다.

<표 5> 주요국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구분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전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영국(2007)	53%	전체 60%
캐나다(2007)	36%	전체 46%
호주(2006)	30.3%	전체 34.1%
일본(2006)	26%	전체 26%
미국(2007)	23.8%	전체 52%
한국(2009)	5.3%	전체 19.3%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현황에 대한 파악이 불충분하고 자료마다 차이가 크다는 점은 감

- 4) 물론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전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증가는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인구층에 대한 교육기관의 자원봉사 의무화와 관련하여 나타난 부분이 강하고, 전 연령층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가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2009년까지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3.7%에서 79.8%, 20대는 4.4%에서 13.9%로 크게 상승하여 고령층에서의 완만한 상승세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안되어야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경향의 유추는 가능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고령층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1990년대 이후에도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그다지 향상되지 않았다. 셋째, 일반 인구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비해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크게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두드러진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했느냐의 유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때문에 노년기 진입 이전에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고령층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표 6>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희망

구분		전체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하겠다	하고 싶지만 지금은 어렵다	할 생각이 없다
자원봉사 유경험자	전체	100.0	19.3	66.8	28.8	4.5
	65세이상	100.0	5.3	75.9	18.1	6.0
	60세이상	100.0	7.0	78.0	17.2	4.8
자원봉사 무경험자	전체	100.0	80.7	14.6	57.8	27.6
	65세이상	100.0	94.7	4.8	29	66.2
	60세이상	100.0	93.0	6.1	34.1	59.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9.

한편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비경제적인 사회참여활동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사회참여활동이 주로 친목과 종교단체 활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고령층의 사회단체활동

특 성	단체 활동 참여율	참여한 단체활동(중복응답)								
		친목 단체	종교 단체	문화 활동 단체	스포츠 레저 단체	시민및 사회 단체	이익및 정치 단체	봉사 단체	학습 단체	
전체	65세 이상	74.5	54.9	44.3	0.7	2.9	1.6	0.4	2.6	6.0
	60세 이상	77.7	59.6	45.6	1.2	4.0	1.5	0.6	3.4	5.2
성별	남성	78.1	67.8	32.4	1.0	6.8	2.8	1.1	4.1	3.9
	여성	77.4	53.5	55.4	1.3	2.0	0.6	0.1	2.9	6.1

자료 :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2009.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의 다른 측면 중 하나는 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빈도와 관련된다. 대체로 1개월에 1-2회가 가장 많아 정기적인 사회활동으로서는 매우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고령층의 봉사단체활동 참여빈도

봉사단체활동 참여빈도		1년 1~2번	3개월 1~2번	1개월 1~2번	1주 1~2번	1주 4회 이상
전체	65세 이상	8.9	9.6	44.3	29.9	7.3
	60세 이상	10.9	11.4	45.4	27.4	4.9

자료 :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2009.

고령층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분야는 교통 및 환경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표 9> 자원봉사 활동 내용(복수응답)

(단위 : %)

	전체	환경보전 범죄예방	국 가, 지역행사	자녀교육 관 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해지역 시설복구	기 타 (무료상담)
만15세 이상 전체	100.0	25.4	11.3	12.1	43.7	11.3	16.1
65세 이상	100.0	45.0	6.1	5.9	28.9	10.0	14.8
60세 이상	100.0	40.8	8.4	4.6	32.5	11.9	19.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9.

그런데 이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분야는 현재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사회복지와 같이 전통적으로 대인원조 분야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보람을 경험할 기회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

<표 10> 고령층이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

특 성	참여 희망	희망분야								
		사회 복지	교통 및 환경	스포츠 레크리 에이션	교육 문화예술	보건의료	정치사회 활동	국제협력 홍보	기타	
전 체	65세 이상	11.3	62.3	16.5	3.4	5.9	5.9	2.1	2.6	1.2
	60세 이상	15.5	62.7	17.3	3.6	5.1	5.3	2.6	2.1	1.3
성	남성	18.2	51.2	25.9	4.9	6.4	3.6	3.7	3.5	0.9
	여성	13.5	74.3	8.7	2.3	3.8	7.0	1.5	0.6	1.7

자료 :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2009.

고령층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에서 교통비나 식비의 지원 등의 혜택을 원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흔히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을 강조하곤 하지만 통상적으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수단을 활용하곤 한다. 고령층은 정보의 제공보다 물질적 혜택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표 11>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해 고령층이 원하는 사항

구분	자원봉사 장소 정보 제공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교통비와 식비 제공	자원봉사 교육	활동중 사고보험 가입	자원봉사 활동포상	사회 인정과 동기 부여	다양한 혜택	지원 필요 없음	
전체	65세 이상	18.0	12.2	20.3	7.1	2.9	1.4	6.7	12.4	18.8
	60세 이상	18.4	11.5	22.1	7.7	2.6	1.4	9.0	10.6	16.6
성	남성	17.6	11.4	19.5	7.4	2.5	1.8	11.8	11.4	16.5
	여성	19.2	11.7	24.7	8.1	2.7	0.9	6.1	9.9	16.7

자료 :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2009.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일반인과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이야기하곤 한다.

<표 12> 노인 자원봉사 참여촉진요인과 저해요인

참여촉진요인	참여저해요인
긴 여가시간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체적 능력
높은 사회활동 참여 욕구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보수성
다양한 사회활동경험	교류에서의 경직성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
존경과 인정 추구	새로운 지식습득 경로의 취약성

출처 : 남기철, 「자원봉사론」, 2007.

고령층은 일반 인구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경륜을 쌓아 왔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존경과 인정을 추구한다. 이는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의 취약성과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보수성이나 대인 교류에서의 경직성, 이동성이 떨어지는 점,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의 상대적 취약성 등은 자원봉사나 사회참여에 장애요소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부진하다는 것은 참여의 촉진요인보다 저해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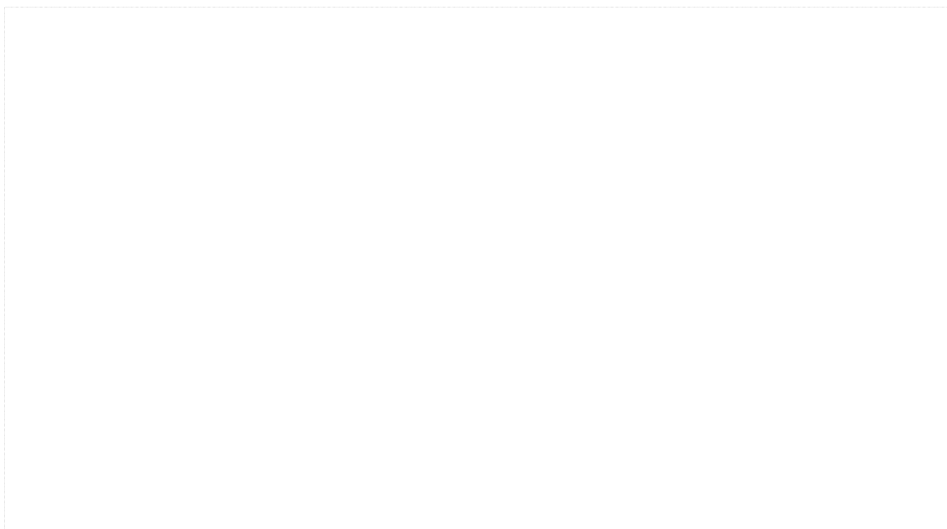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이것이 본래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봉사관리(Volunteer Management)이다. 그렇다면 고령층에 대한 자원봉사관리는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촉진요인을 강화하고 저해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령층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욕구 충족과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령층이 자원봉사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인 경제적 취약성 요소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노인일자리사업과 고령자의 사회참여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되면서 이 프로그램은 빈곤한 고령층의 소득에 대한 보조적 기제로서의 역할과 아울러 고령층의 사회참여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역할을 상징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시작된 이후 양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처음 약 4만 자리의 규모이었던 사업은 현재 연간 20만 자리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급격한 양적 팽창으로 불과 몇 년만에 5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 창출 실적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분야의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민간분야의 시장참여형 일자리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이 고령층의 자원봉사 혹은 사회참여활동과 상당부

분 정책적으로 중첩되는 성격이 있다. 공공분야 일자리의 경우 급여는 공공의 재정에서 지출되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그렇지만 수익성이 창출되는 것은 아닌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사실상 노인일자리사업의 압도적 다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이며 그 중에서도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림 4>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9.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이 연중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7개월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머지 5개월의 경우에 사업참여 노인에게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속하기를 요구하곤 한다. 이는 강제성을 띠지는 않더라도 향후 공익형 사업의 대상자 선발에서 우선 선발이나 가점의 요소가 되도록 함으로써 대개의 사업참여 노인은 공익형 사업과 관련한 자원봉사활동의 압력을 느끼게 된다. 이 경우 자원봉사활동은 말 그대로 ‘공짜’, ‘무보수’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동일한 일을 하지만 급여는 받지 않는 기간의 활동을 ‘자원봉사’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표 13>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예산 지원 기준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인건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	계
공공 분야 (사회 공헌형)	공익	20만원	7개월	13만원 (예산범위내 공익형11~13만, 교육·복지형 13~15만원 탄력적용가능)	151~155만원
	교육				
	복지				
민간 분야 (시장 참여형)	인력 파견형	-	연중	15만원 (예산범위내 탄력적용 가능)	10~15 만원
	시장형	-	연중	130만원	130만원
	창업 모델형	-	연중	-	사업단별 차등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90만원	9개월	-	8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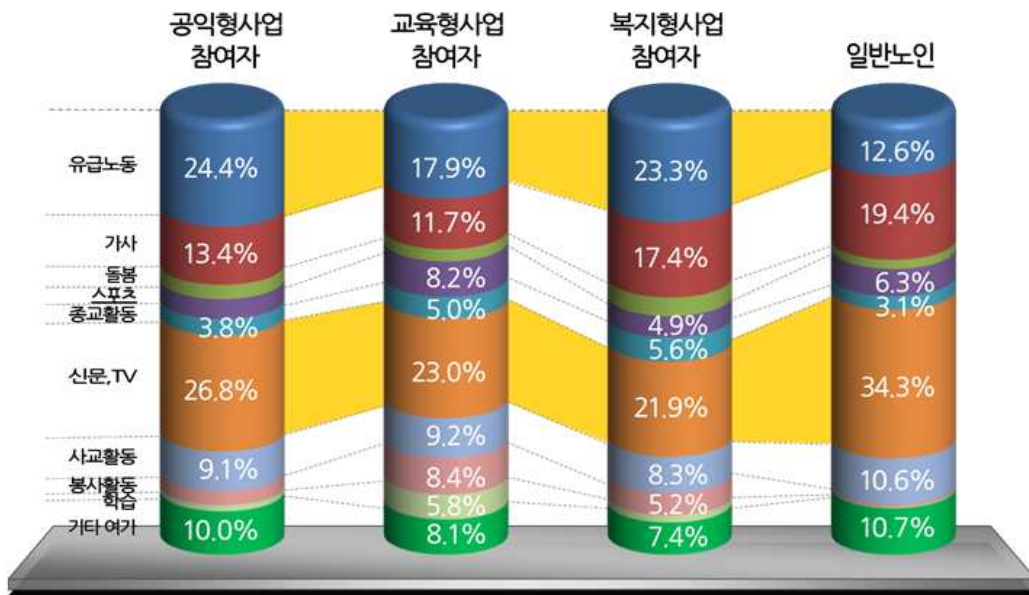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은 월 20만원 선이므로 급여수준의 측면에서도 사실상 ‘유급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노인일자리사업에서의 구도가 사회참여적 활동의 동기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을 연계하고, 생계비 중심의 경제적 욕구에 대해서는 시장참여형 일자리사업을 연계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시장참여형 일자리에서 적절한 수입이 창출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생계비 욕구가 강하며 인적자본 수준이 취약한 고령층이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집중되는 ‘욕구-일자리유형’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계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비등하다. 특히 공익형과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 이전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되던 것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이후 급여가 주어지는 활동이 전개됨으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으로 수행하려는 고령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에서 그 성과를 지적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평가조사 결과를 통해 나름대로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소득보전을 통한 빈곤율 감소효과(김미곤, 2006, 2007)와 의료비 절감효과(임재영, 2006; 이석원, 2006), 참여자의 심리적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 효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6년도 조사) 등은 실증 계량적 결과로 제시되고 있다. 이석원(2009)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종합적인 효과분석을 위해 논리모형에 입각하여 선택편의를 통제한 실증적 분석방법으로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의료비 절감효과와 경제적 효과, 생활패턴과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모두 유의할만한 긍정적 성과가

있었음을 검증하였다(이석원, 2009).

특히 참여자의 사회참여적 활동 부분과 관련하여 고령층의 하루 생활패턴을 비교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일반노인에 비교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고령층의 경우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 시간이 적고 유급노동(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이므로 내용상은 유급 자원봉사인 사회참여로 볼 수 있음)과 같은 활동적 시간이 많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과의 일환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림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하루 생활패턴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9.

자원봉사활동 관련체계의 경우에도 일선 지자체 현장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표 14> 주요 자원봉사 관련 체계의 노인일자리사업 병행 정도

구분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노인단체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95.3%	17.4%	88.2%	75.0%
희망근로 수행	37.2%	8.7%	23.5%	26.0%

자료 : 정진경 외(2009)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의 사업체계이고, 자원봉사활동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사업체계이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방향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는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들은 노동부 주관의 사업체계이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직접 추진하는 지역의

일선 사업체계는 중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중앙 행정기관에서는 ‘미세한’ 차이나 담당 부처의 소관 문제로 분리되어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동일한 사업 수행체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선에서는 유사한 사업임에도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때 2009년 희망근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모집과 운영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가 혹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 이후 노인 자원봉사자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불만은 이와 관련될 수 있다. 일선의 주요한 각 노인복지체계가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5>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원봉사 관련 수행체계

기관	규모	주요사업내용
노인종합복지관	237('09기준)	노인자원봉사자 리더교육 노인자원봉사자 발굴, 교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대한노인회	245개 시군구 지회	노인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노인지역봉사지도원 교육/경진대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자원봉사센터	전국 시도, 시군구에 248개소	자원봉사자 육성 및 교육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423개	일반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노인자원봉사 수행
시니어클럽	100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23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책임
지역별 단체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실버인력뱅크 등	노인취업연계, 자원봉사활동

V 고령자 자원봉사·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논의

1. 기존 고령자 자원봉사·사회참여 활성화 논의

고령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이를 위한 제언들이 꾸준히 제시되어오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고령층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미시적 자원봉서관리 활동과 아울러 환경적·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과제를 제시(남기철, 2007)하곤 한다. 여기에서는 첫째,

노인 대상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경우에 단순한 몇 가지 활동 내용이 지배적인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주요한 노인단체에 사회복지나 자원봉사관리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과 관련된다. 다양한 노인의 경력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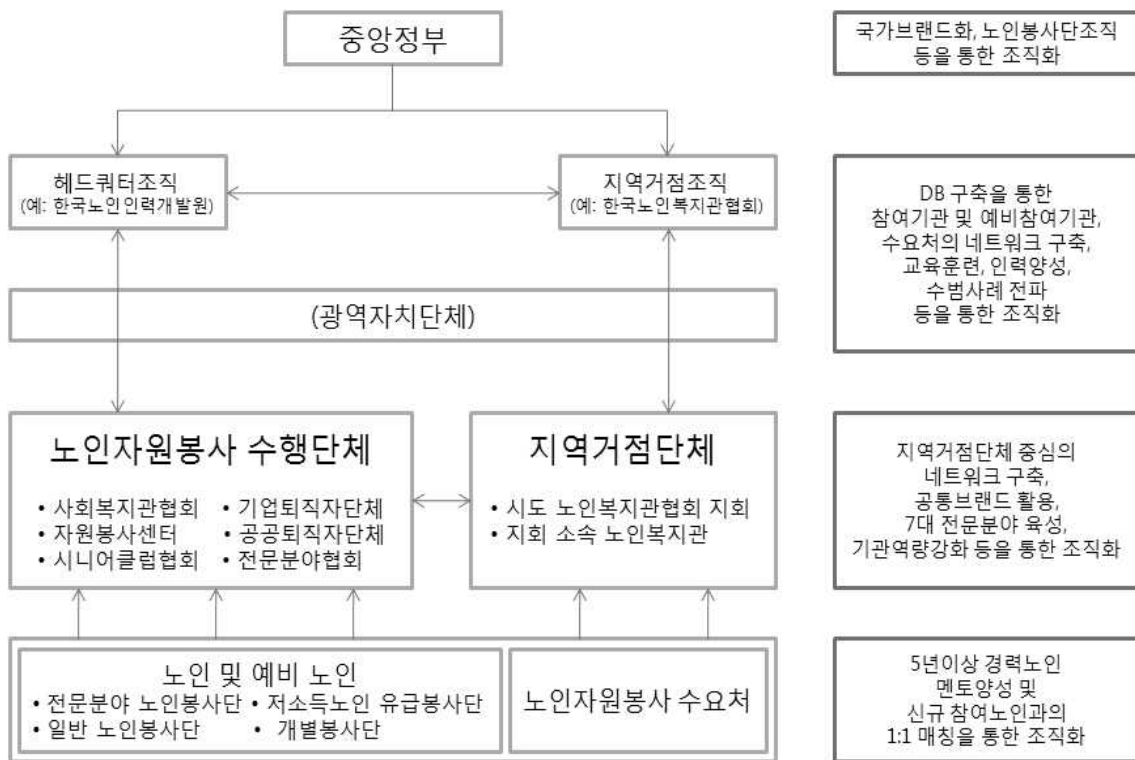
둘째, 고령층 대상 자원봉사관리자의 활동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노인단체 등에 자원봉사관리자가 배치되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노인 자원봉사관리자가 많이 양성되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도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고령층에게 자원봉사 관리체계와 추진체계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직도 활동 욕구를 가진 많은 노인들이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리체계나 추진체계의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승인과 보상 체계를 확충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의 노인세대는 자원봉사활동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에서 생활하여 왔으므로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체계로서 적절한 승인과 보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에 대해 ‘역할 없는 역할’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노인을 주변화하여 소극적 태도를 유발하는 분위기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진경 등(2009)은 고령층에 대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노인봉사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 확산, 노인자원봉사의 지속화 및 생활화, 정부의 노인자원봉사 체계 조직화, 노인자원봉사 실무역량 강화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국가 브랜드화한 노인봉사단의 조직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RSVP 혹은 Senior Corps와 같은 선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3개 유형의 국가 노인봉사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저소득유급봉사단, 일반노인봉사단, 전문봉사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유급봉사단이란 정부 예산사업의 급여를 받는 유급봉사활동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사업을 대체하여 연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반노인봉사단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의 체계를 의미한다. 전문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나 노인단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림 6> 기존 연구에서의 고령층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및 지원체계

출처 : 정진경 외, 2009.

이러한 연구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제안의 경향은 첫째, 자원봉사관리의 고도화, 둘째, 전문봉사단의 활성화이다. 이는 기존의 고령자 자원봉사활동관리가 취약하여 고령층의 적절한 접근이 어려웠고,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도 전근대적·자선적 성격의 단순한 업무에 국한되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Senior Corps, SCORE, AARP, Civiv Venture,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NALC, 영국의 Prime Times, Reach, 캐나다의 YourEncore 등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이 경주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문화예술관련체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여러 형태의 병렬적, 경쟁적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해피시니어와 같이 고령층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연구조사, 캠페인, 기반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초점화된 순수 민간 프로그램도 작동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령층 (전문)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지상과제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관련체계의 주도권 다툼과 같은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2. 고령층 자원봉사·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존 패러다임의 검토

우리나라의 고령층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논의들에서 전제되고 있는 바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인적자본이 풍부하고 (노년기 퇴직 이후 돈을 받지 않고라도) 사회참여의 동기가 높아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전문화된 참여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자원봉사관리 고도화와 전문봉사단의 창출이 여러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내용으로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방향은 절반만 사실인 패러다임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조사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를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약 7.3%이다. 고령층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료 자체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 이 수치를 이전 세대 노인과 직접 비교하여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 세대 노인과 비교하여 크게 높아진 것이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향후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은 44.0%로 현재의 참여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이것이 자원봉사관리와 전문 봉사단 창출에 집중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⁵⁾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현 고령층과의 차별성만이 아니라 현 고령층과의 유사성과 관련된 부분에도 집중해야 한다. 즉, 현 고령층이 고령에 진입하기 전 상황과 차이가 있었듯이 현 베이비붐 세대가 나타내는 특성도 고령시기에 진입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감안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현 노인세대와의 차이점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시점의 중장년 세대와의 유사점에 주목할 것인가”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생활비 마련의 주된 방법이 사회보장과 같은 안전망보다는 ‘본인 개인적(근로소득이나 기타의 개인소득)’으로 해결하겠다는 비율이 절반(49.1%)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이와 관련된다. 같은 조사에서 희망하는 주된 노후생활방법에 대한 응답비율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16.8%를 나타내었다. 취미활동이 42.3%, 소득활동이 18.8%, 종교활동 9.1%, 자기개발 7.5%, 안식이 3.0%, 손자녀 양육이 2.5%를 나타내었다.

결국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직면할(것으로 예측되는) 경제적 취약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자원봉사단이라는 기술적 과제 이외에 다수 고령층에 대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함께 연결하는 모색과 기획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사실 자원봉사와 사회참여 가능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수요-공급 연계 활성화의 방법으로 사회참여를 확산하자는 방안은 고령층 사회참여 활성화에 초점이 두어진 논의라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봉사관리 질적 고도화를 위한 핵심주제이었다. 물론 지난 10년 간 자원봉사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 간 주도권 다툼, 현장에서의 중복과 누락 상황 등으로 인해 잘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행안부 및 복지부 등 자원봉사 일반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편성되어 있다. 고령층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초점은 이 자원봉사 일반의 관리체계 활성화와는 다른 명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진경 등의 연구(2009)에서는 이를 감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방안과는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일한 국가 브랜드화된 고령층 봉사단 내에 세 가지 유형, 즉,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유료자원봉사, 일반 노인에게는 복지관 체계를 통한 일반봉사, 전문적 능력을 가진 노인에게는 자원봉사센터 등 체계를 통한 전문봉사단이라는 식으로 단선론적인 체계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과잉단순화 혹은 단선론적 체계의 결점을 나타내고 있다. 자칫, 고령층 자원봉사활동이 내부적으로 계층화되거나 낙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나타나는 ‘욕구-사업유형 역전현상’처럼 욕구 중심의 자원봉사자/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구별 혹은 단선론적 체계는 부적절하다는 의미이다. 즉, 자칫 고령층을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대상층으로 구분하면서 전문 자원봉사(대상), 유료 자원봉사(대상), 공헌형노인일자리(대상), 시장형노인일자리(대상), 일반시장근로자라는 순서로 파악할 수 있다. 앞쪽일수록 경제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자원봉사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 뒷쪽일수록 경제적 필요성이 높고 근로활동을 계속 하려는 사람과 같은 방식이다. 사실상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편성이 이러한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경우 인적자본 수준은 어느 한쪽이 단선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다. 통상 U자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고령층 중에서 전문 자원봉사자와 노동시장 지속근로자의 경우가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은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층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근로활동(소득을 위한 활동욕구)과 자원봉사의 관계 설정, 인적 자본 수준과 자원봉사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 양자의 접점에서 공헌형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활동을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다수 고령층에게는 특히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3. 공헌형 일자리와 유료 자원봉사를 포괄하는 사업체계 개편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 영역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선되는 초점도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 양자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존재하면서 마찰점이 생기는 것보다는 서로 연계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향후 당분간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인적자본과 사회참여 욕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이 대상자를 놓고 경쟁하는 쟁탈전 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앙부처 수준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고령층)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독립적 체계를 지향하는 운영방식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현장의 고령층 입장에서 오히려 어느 단위의 사업에도 잘 접근하기 어렵고, 서로 다른 정보에 직면하게 만든다.

현재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약 15만,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고령층이 약 45만이다. 그 밖에도 노인복지관이나 민간 조직을 통해 활동하는 전문봉사단 등 노인 자원봉사자도 상당수가 있다. 이들이 고령층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맞닥뜨리는 체계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첫째,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여기에 부응하는 사업 운영체계를 모색한다. 향후 5년 간 고령층 자원봉사자(사회참여활동자) 활동률을 현재 대비 두 배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규창출보다는 가급적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령층 자원봉사와 사회참여 활동체계를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체계의 확충보다는 각 체계에 대해 고령자 자원봉사와 사회참여 활동을 관리조정할 코디네이터의 확충과 배치 지원이다.⁶⁾

둘째, 하나의 중앙체계(한국노인인력개발원)가 노인일자리사업과 고령층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전체적 헤드쿼터로 기능하도록 한다. 현재 노인인력개발원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혹은 자원봉사체계 등과는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부처차원에서 일단 협력적 분위기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유료 자원봉사와 연계시킨다.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양화한다. 일부는 보다 집중적인 일자리 사업(보다 많은 근로시간과 보다 높은 급여)으로 전환시키고, 현재의 급여수준과 같은 활동은 유료 자원봉사로 전환한다. 단, 유료 자원봉사와 일반(무급의)자원봉사활동은 참여자의 연령, 업무의 조건으로 구분하는 지침을 분명히 한다.

넷째, 유료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사업(현재의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특히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을 감소시켜 지역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관련체계, 노인복지체계들도 운영하도록 한다. 이것이 가능해야 ‘동일한 업무에 대해 지자체로 가면 급여를 받고, 자원봉사 체계에서는 무급으로 일한다’는 마찰적 부분의 극복이 가능하다.

다섯째, 고령층 자원봉사자가 어떤 체계에 진입하더라도 자원봉사나 사회참여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모두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위 One-Stop의 체계까지는 어렵더라도 Any-Stop과 같은 방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단체 등이 노인 사회참여나 자원봉사에 대해 동일한 정보 콘텐츠와 전산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각 체계의 고령층 사회참여 담당자에 대해서는 노인인력개발원이 동일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⁷⁾

6) 이들이 수행할 기술적 역할의 내용 예시는 4항에서 적시하였다.

7) 현재로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측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와는 달리 자원봉사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봉사단 활동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발원이 우선 자원봉사 관리조정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향후 유료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고령층 다수에게 부합하는 사회참여 기회를 확산하는 가장 기본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유사한 부분과 고령층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는 개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간과 경제적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고령층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현장연계 시스템이 취약하다. 그리고 전문 자원봉사단의 활동도 극히 빈약하다. 때문에 (소위) ‘순수 자원봉사성’을 강화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체계를 강화하는 것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고령층 자원봉사에 초점을 둔 논의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성화 과제’의 전반적 관점에서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모색되고 있는 부분이다.⁸⁾ 활동욕구를 현장으로 연계하여 현실화하는 것, 전문 자원봉사단에 대한 지원은 고령층 사회참여 활성화라는 측면보다는 전체적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4. 기술적 측면에서 고령층 자원봉사관리 체계화와 코디네이터 교육훈련

고령층에 대한 자원봉사관리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자원봉사관리와 같은 원칙과 절차를 거친다. 먼저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다음, 모집과 선발, 교육 과정을 거쳐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령 참여자의 특성, 희망하는 활동장소, 활동 대상, 활동 분야, 관심 영역, 생활하고 있는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관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김범수 외, 2004).

- ① 노인의 성격이나 습관을 파악한다.
- ② 자원봉사활동을 인생설계의 가운데 둔다.
- ③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④ 요보호자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한다.
- ⑤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를 배려한다.
- ⑥ 노인은 활동자가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하도록 고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이 주된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이후 얼마전부터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국가 5개년 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⑦ 다양한 활동의 종류를 준비해서 활동의 계기를 만든다.

⑧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한다.

다소 기술적이고 미시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령층 자원봉사자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자원봉사관리사항으로 논의되는 사항(남기철, 2007)들이 있다. 노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수단을 선택하는데 있어 노인이 익숙한 매체를 선택하여야 한다. 기존의 노인 자원봉사자를 모집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선발과 면접 과정에서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특히 노인 자원봉사자는 단기 자원봉사자보다는 전통적인 장기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분적이고 기계적인 업무분담보다는 활동 영역의 전반적인 동료의식을 나누는 형태의 업무배치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교육과 훈련과정에서는 필요한 교육을 한 번의 강의로 수행하는 것 보다는 반복과 경험의 이해를 충분히 활용하는 코칭(coaching) 등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노인은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오답을 말하지 않으려 하는’ 특유의 심리사회적 특징을 가지기 쉬우므로 교육과 훈련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수퍼비전과 평가, 승인 과정 전반에 걸쳐 참여 노인의 자존감을 증진하고 충분히 존중하는 태도를 전달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 자원봉사자로서의 특징이 많은 인구층인만큼 활동 참여가 장기화되도록 격려하고 점점 더 많은 책임과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만약 단기 자원봉사활동으로 종결하는 노인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프로그램 기획이나 관리활동에 부적절한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빨리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과제들에 집중하면서 ‘노인자원봉사관리자’를 별도로 편성하거나 별도의 전문추진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자원봉사관리체계가 (혼잡스러울 정도로 다층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노인일자리 혹은 노인인력개발과 같은 체계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현재 자원봉사관리 코디네이터는 주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의 체계에도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고령층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추진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령층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일반 자원봉사에서의 관리조정체계 활성화 이슈와 동일한 부분의 정책과제와 고령층에 특화된 여건에 대한 정책과제로 구분되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저러한 논의들을 차치하고라도,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사회 전체적으로 혹은 고령층 스스로에게도 많은 유익을 가져오고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고령층 자원봉사와 사회참여 증진 이슈가 정말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가 하는 점

은 다시 한 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대개의 경우 많은 관련 정책의 말미에 부수적인 이 슈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예산지원 등의 측면에서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 다. 정책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관련 프 로그램 자체가 전시적인 것으로 설정되곤 한다. 그러다보니 늘상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 고 추진하되, 하나의 ‘사례’로만 취급된다. 중요한 정책이라면 대상인구와 표적내용을 설정 하고, 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해 얻어내야 할 변화의 정도를 ‘성과목표’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입(input)을 기준으로, 이러저러한 일들도 추진하겠다는 식의 계획을 넘어서야 할 필 요가 있다. 고령차 자원봉사와 사회참여의 활성화는 그 성격상 민간의 역할부분이 많은 것 이겠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다면 공공이 어느 정도의 성과(예를 들어 고 령층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목표, 고령층 사회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문제의 경감 수치목 표 등)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맞는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현재 와 같이 ‘몇몇의 시범적인 프로그램이나 체계를 추진해 본다’는 방식으로는 무언가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적절하다.



참고문헌

- 강창범(2006).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곤(2006),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율 감소효과, 제6차 노인일자리전문가포럼 자료집.
- 김미곤(2007),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비교, 제7차 노인일자리전문가 포럼 자료집.
- 김미령(2006). 전기후기 여성 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권. 2호
- 김범수 외(2004). 자원봉사의 이해. 학지사.
- 남기철 외(2008),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동덕여대 산학협력단.
- 남기철(2007). 자원봉사전론. 나남.
-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 이석원(2006), 노인일자리사업 연차별 의료비절감효과 분석, 제6차 노인일자리전문가포럼 자료집.
- 이석원(2009),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정책방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임재영(2006),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료비 절감 효과, 제6차 노인일자리전문가포럼 자료집.
- 정경아(2000). 노인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 외(2009). 노인자원봉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자원봉사포럼.

주경희(2010). 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9).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실태와 욕구조사.

Session

III

노인자원봉사 현황 및 발전방향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노인자원봉사 현황 및 발전 방향⁹⁾

박 영 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I 서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 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이 제시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활동이론에 따르면 노인은 신체 및 환경적 제한이 따르고 중요한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지위에 따른 역할이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긍정적 자아개념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노화에 적응할 수 있다(권중돈, 2010). 최근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 및 고령자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참가자의 생활만족도, 자아통합감, 효능감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대부분 자원봉사활동이 노년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준다(이금룡, 2003; 김미혜 외, 2003; 권미애, 2008).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원봉사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활동 기회도 제한적인 실정이다.
- 이 글은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¹⁰⁾의 관점에서 특히 무보수 노동인 자원봉사활동에

9)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0), 「노인자원봉사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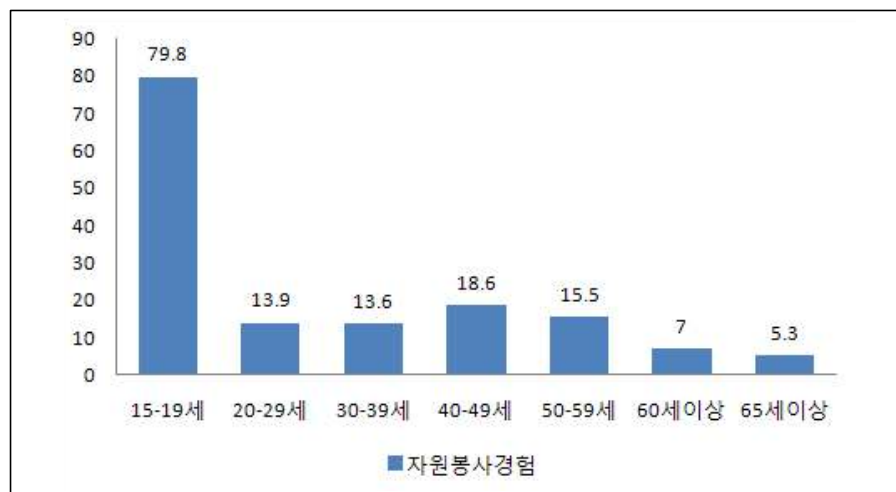
10) ‘활동적 노화’는 세계보건기구가 고령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시한 개념적 틀이다. 이것은 노화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전(security)의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표준을 제시한다. 활동적 노화 접근방법은 노인의

초점을 맞추어 노년기 자원봉사 현황을 파악하고, 아직 발달 초기단계에 있는 노인자원봉사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자원봉사 관련 현황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전문노인자원봉사 사업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자원봉사 수요처 조사결과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¹¹⁾

II 노인자원봉사 참여 현황

1. 전국 실태조사 결과

-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 이상 한국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약 20%인 것으로 밝혀졌다(행정안전부, 2008). 한편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은 7.0%, 65세 이상은 5.3%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다.



<그림 1> 전체 인구 자원봉사활동 경험

자료 : 통계청(2009). 「사회조사보고서」.

인권과 유엔의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과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활동적 노화 모형은 정책의 개념적 틀로서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및 안전(Security)의 세 가지 요인을 강조한다. 특히 참여는 노동시장 참여, 교육기회 제공,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노년기에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적 활동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년기에도 보수 또는 무보수로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칙이다.(박영란외(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11) 필자는 이 두 조사에 모두 참여하였다.

- 전국 60세 이상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2.1%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보건복지부, 2009). 65세 이상 노인은 10.2%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5-79세의 노인은 자원봉사 참여율이 8.4%로 감소하고, 85세 이상은 5%로 더 낮아졌다. 한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향후 참여 의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16.4%, 65세 이상은 15.5%로 나타났다.
- 2009년 말 현재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약 530만명의 자원봉사자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9.89%로 2005년 10.2%와 별 차이가 없다.

<표 1> 전국 지역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현황(명)

연령	'09.12	'08.12	'07.12	'06.12	'05.12
20세 미만	1,392,766	1,102,429	731,312	577,475	461,728
30세 미만	884,771	654,826	491,402	387,578	280,234
40세 미만	717,047	665,965	491,573	377,498	291,274
50세 미만	1,075,208	917,345	717,813	615,256	495,536
60세 미만	763,458	628,507	501,151	440,742	345,960
60세 이상	530,185	427,561	346,660	282,644	208,972
합계	5,363,435	4,396,633	3,279,911	2,681,193	2,083,704

자료: 행정안전부(2010). 「2009 자원봉사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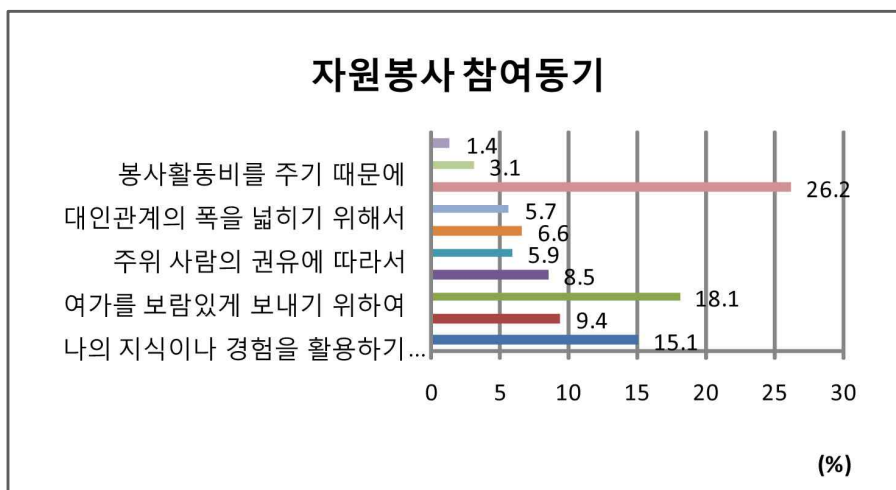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도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만이 현재에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나 44%는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노인자원봉사 만족도 조사 결과

- 이 절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5년에 걸쳐 추진해온 전문노인자원봉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노인자원봉사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약 3,000명의 노인들이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현장 실무자들은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0년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퇴직자 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운영하였으며, 의사, 사회복지,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의 7개 퇴직자 단체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2010년 전문노인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특성, 활동 만족도 및 건의 사항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²⁾

- 본 조사에는「보건복지부 2010년 전문노인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 가운데 총 243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 향후 활동 지속의사 등에 관해 응답함.
- 조사 참가자의 성별은 여성이 50.2%, 남성이 49.8%이고, 연령은 평균 67세로 53세부터 83세의 분포이며, 60대가 60.2%로 가장 많았음.
-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45.7%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임(전문직 퇴직자 포함)
- 경제수준에서는 평균 2.99점(5점 척도)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직업에서는 과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상태가 80.8%이었으나, 현재는 75.8%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전문자원봉사활동이 과거 직업이나 경험과의 관련여부는 61.7%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는 평균 3.67점(5점 척도)으로 대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는 66.4%가 자원봉사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경우가 67.9%로 나타남.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한 시기는 평균 55세이며, 60대가 42.6%로 가장 많았음.
- 봉사는 ‘행사가 있을 때만 하는 경우’가 31.9%로 가장 많았고, ‘주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44.6%로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동기는 ‘남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26.2%로 가장 많았음. 그 밖에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가 18.1%,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도 15.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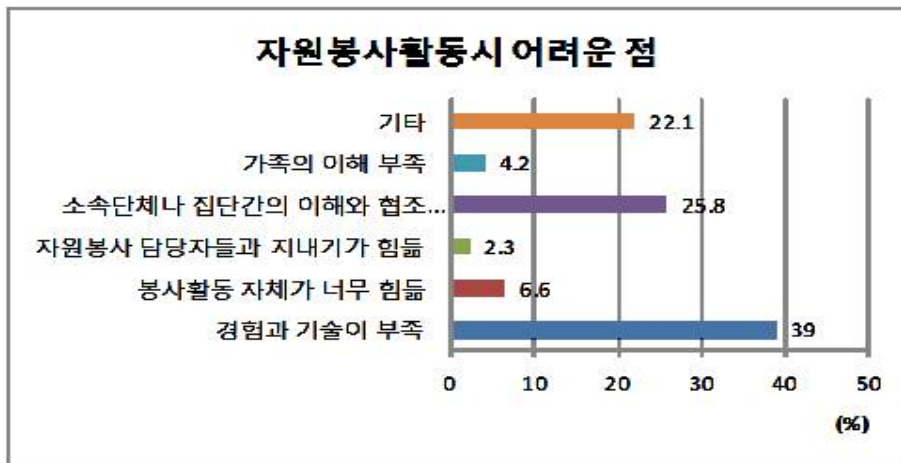
12)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0), 「2010 전문노인자원봉사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 2010년 전문노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평균 3.80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2010년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기관의 지원이 부족함'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봉사활동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25.4%로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이후의 변화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평균 4.26점으로 가장 높았음.

<표 2> 자원봉사활동 이후의 변화정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가족관계가 좋아졌다	3.83(0.68)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4.15(0.65)
나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4.26(0.59)
내가 사는 지역사회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4.15(0.64)
자원봉사를 통해 타인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한다	4.03(0.68)

-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경험과 기술의 부족'이 39.0%로 가장 많았음. 그 밖에도 '소속단체나 집단 간의 이해와 협조 부족'도 25.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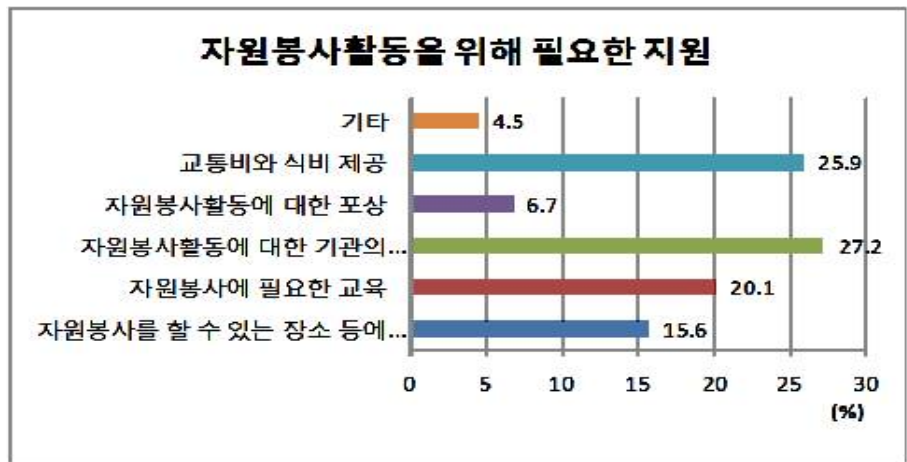
-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99.2%가 지속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활동을 희망하는 분야는 '교육'분야가 35.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복지'가 33.3%, '환경'이 12.0%의 순으로 나타남.¹³⁾

13) <전문노인자원봉사 '08-10' 분야별 지원 현황>

지원 연도	기술 경영	교육 상담	문화 예술	금융 경제	언론	의료 보건	기타 (지역사회)	총계
2008	1	6	5	0	0	0	17	29
2009	1	7	13	1	1	1	9	33
2010	2	14	3	1	1	6	0	27
총계	4	27	21	2	2	7	26	89
	(4.5%)	(30.3%)	(23.6%)	(2.2%)	(2.2%)	(7.9)	(29.2%)	(100%)



-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27.2%로 가장 많았고, '교통비와 식비 제공'이 25.9%, '교육'이 20.1%, '정보 제공'이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08년~2010년 3개년도의 전문노인자원봉사 활동 참여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남성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평균 연령이 낮아졌으며, 60대의 참여가 증가하고 학력수준이 높아졌는데 이것은 퇴직자 단체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자원봉사 참가자의 경제적 특성에 있어서는 2010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과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과 현재 직업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짐. 이것도 퇴직자 단체가 참여하면서 남성 봉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2010년에는 응답자의 61.7%가 과거 직업과 관련이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짐.
- 자원봉사 활동 참여 동기의 변화를 볼 수 있음. 2010년도에는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가 15.1%로 전년도에 비해 동일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하여,' '신앙의 실천으로' 및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의 비율은 약간 낮아진 반면, '남을 위해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와 '봉사활동비를 주기 때문에'의 비율은 약간 높아짐.

- 자원봉사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은 2010년도에는 퇴직자 단체가 많이 참여하고, 과거 경험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경험과 기술 부족' 응답 비율이 많이 감소함. 그러나 2010년도에 '소속단체나 집단 간의 이해와 협조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자원봉사자들간의 인간관계 조정 등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짐을 시사함.
- 연도별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비교해보면 201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적절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교육,' 및 '교통비나 식비 등 실비 지원'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자원봉사에 대한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비율이 두배 이상 증가함. 이것은 퇴직자 단체 등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하는 기관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신규 참여자들의 경우 자원봉사 관리 업무가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전담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임.

III 노인자원봉사 관련 정책 현황

1. 노인자원봉사 정책 동향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 사회참여 지원)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명시하였다.
- 최근 고령자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은 노인복지정책 및 고령사회대책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라는 비전이 강조되면서부터이다. 국무조정실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2002년 7월에 발표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서는 노인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 노인 건강보장, 노인교육 및 문화·여가 기회 확대, 실버산업 활성화 및 노인보건·복지 대책 추진체계와 관련된 50여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2006년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노인의 건강증진과 의료 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정책과제를 포함하였고, 2010년 발표한 「새로마지플랜 2015」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베이비붐 세대관련 총 4개 분야 36개 과제를 추가하였다.

[참고자료]: 「새로마지플랜 2015」의 자원봉사 관련 내용

- ◆ 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노인자원봉사단 구성·확대('11년 30개 사업단 1천명→'15년 150개 사업단 75백명)
- ◆ 비영리부문에의 일자리 연계: 영리기업 출신자의 지식과 경력을 비영리부문의 취약성(재무, 마케팅, 경영관리, 펀드레이징 등)을 보완할 수 있게 활용하고 은퇴자의 생산적 활동을 연장시킴(보건복지부 앙코르 프로젝트: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

2. 노인자원봉사 관련 부처별 현황

-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노인복지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산하기관을 통해 자원봉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자원봉사는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서 참여 대상자인 노인들의 입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 주무부처로 총괄 기능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함. 행정안전부의 민간협력과에서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연금복지과에서는 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노인 전문자원봉사 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복지관과 민간단체의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퇴직자 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을 지원하고, 외교통상부는 KOICA의 시니어봉사단 운영을 지원하고, 지식경제부와 연계하여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각 부처의 사업과 연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 기관별 노인자원봉사 지원 현황

기관	자원봉사 관련 정책 및 사업	중고령자 자원봉사 사업 현황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주무부처로 총괄 기능과 조정 역할 수행 -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공모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 -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봉사활동지원사업(재래 시장 세무범무 상담도우미(2010.4), 저소득층자녀 공부방 지원, 사회소외계층 가정 등 안전진단·수리서비스, 전문분야 상담코너 운영, 문화강좌, 정보화교육 강사 활용, 연금업무 서비스 도우미 활용, 공무원임대주택 시설관리업무 보조) - 「민간 안전모니터 봉사단」 전문교육운영 - 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관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노인 자원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자원봉사단 지원 - 앙코르 프로젝트(노령지식인) - 코리아핸즈 시니어봉사단 - 대한노인회 시니어 풀뿌리 봉사단 - 시니어 브릿지 봉사단 활동 - 전국노인자원봉사단대축제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 중심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지방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 3세대하모니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봉사활동 전개 및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 - KOICA 시니어봉사단 -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지식경제부)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범자 재범방지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자원봉사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전문조직의 육성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해설사, 도서관 자원봉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해설사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자원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자원활동센터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소방방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 자원봉사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 우리궁궐지킴이 - 문화재자원봉사단

3. 노인자원봉사 수요처 현황

-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수요자 관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에 ‘수요처 현황 및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군구의 교육, 복지, 의료 등 노인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¹⁴⁾
- 본 조사에 참여한 285개 기관 가운데 85.3%는 사회복지시설이었다. 응답 기관 가운데 60.3%의 기관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향후 노인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활용할 계획이 있다’가 75.9%로 나타나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미래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응답 기관에서 노인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경우 분야와 직무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시설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절 교육’이 18.6%로 가장 많았으며, 무료급식 15.9%, 시설에서의 취미활동 지도 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노인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분야 활동 내용(복수응답)

구 분	빈도	%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의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지원활동(세탁, 청소, 장보기, 식사보조, 의복 갈아입히기, 목욕시키기, 이미용 서비스 등)	65	14.4
외출보조(병원, 공연장, 산책, 캠프 등)	12	2.7
무료급식	72	15.9
시설의 환경관리(시설보수, 미화작업 등)	63	13.9
시설에서 취미활동(음악, 미술, 사진, 독서, 탈춤 등)지도	69	15.3
레크리에이션지도	16	3.5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운동, 마사지 제공 및 보조	19	4.2
상담서비스(청소년, 여성, 노인등)	22	4.9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녹음 및 컴퓨터 입력서비스	2	0.4
시설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절 교육	84	18.6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보조(문서정리, 소식지제작, 우편발송 등)	28	6.2
전 체	452	100.0

14)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 자료 참조.

-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복지시설, 소외지역에서의 무료공연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서관에서의 도서정리가 16.5%로 밝혀졌다.

<표 5> 노인자원봉사자의 문화 예술 분야 활동 내용(복수응답)

구 분	빈도	%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에서 전시안내	12	9.0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에서 전시물 관리	4	3.0
문화재 관광안내	8	6.0
복지시설, 소외지역에서 무료공연(음악, 무용, 연극 등)	43	32.3
도서관 도서정리	22	16.5
문화재보호 캠페인	6	4.5
문화행사관련 정보지 발간	4	3.0
지역사회의 문화행사기획 및 운영	11	8.3
지역 내 유해 문화환경(노래방, 비디오방 등)조사 및 개선활동	2	1.5
TV, 라디오 등 매체문화 모니터링	3	2.3
문화 관련단체에서 업무보조(문서정리, 소식지 만들기, 우편발송 등)	7	5.3
문화 관련단체에서 자원봉사자 관리(프로그램 개발, 소모임 지도 등)	11	8.3
전 체	133	100.0

-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지역 등에서의 의료봉사’가 17.8%로 가장 많았고, ‘성 및 위생 그리고 약물 오남용 방지 등의 보건교육’이 15.9%로 나타났다.

<표 6> 노인자원봉사자의 보건 의료 분야 활동 내용(복수응답)

구 분	빈도	%
간병서비스(사회복지시설, 무의탁노인, 장애인 등)	11	10.3
의료봉사(사회복지시설, 소외지역 등)	19	17.8
환자에게 차량지원 및 동행 서비스	6	5.6
환자의 취미활동 도와주기(병원, 정신건강센터 등)	9	8.4
보건교육(성, 위생, 약물 오남용방지, 성병 및 에이즈 예방교육 등)	17	15.9
건강관련 캠페인(장기기증운동, 헌혈운동, 에이즈예방운동 등)	5	4.7
지역사회 빈민지역의 보건환경 조사하기	6	5.6
보건의료시설의 서비스 모니터링	3	2.8
호스피스 활동	9	8.4
보건의료시설에서 업무보조(문서정리, 소식지 만들기, 우편발송 등)	11	10.3
보건의료시설에서 안내하기	11	10.3
전 체	107	100.0

- 교육 분야에서는 ‘음악, 미술 및 영어 등 방과 후 특별활동지도’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학업에 부진한 학생을 지도하는 일’이 15.7%이었다.

<표 7> 노인자원봉사자의 교육 분야 활동 내용(복수응답)

구 분	빈도	%
학업부진학생 지도	32	15.7
방과 후 학생지도(음악, 미술, 영어 등 특별활동지도)	71	34.8
학생상담활동	15	7.4
야학	8	3.9
성인교육(한글, 컴퓨터 등)	21	10.3
학교의 위험시설, 부족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5	2.5
학원 폭력예방사업	8	3.9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21	10.3
교육 관련단체에서 업무보조(문서정리, 소식지 만들기, 우편발송 등)	9	4.4
교육 관련단체에서 자원봉사자 관리(프로그램 개발, 소모임 지도 등)	14	6.9
전 체	204	100.0

- 소비자 분야에서는 ‘소비자 의식 교육’활동이 2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량 식품 불매운동’이 16.7%로 나타났다.

<표 8> 노인자원봉사자의 소비자분야 활동 내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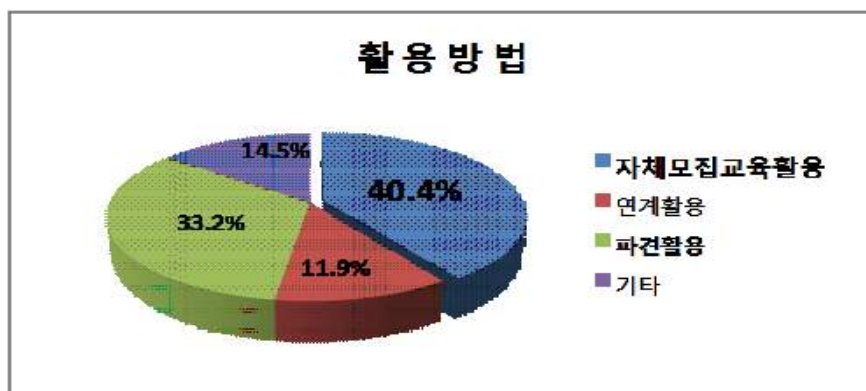
구 분	빈도	%
불량식품 및 상품 접수, 반환, 보상 활동	5	13.9
과소비/불량식품 판매 현장조사	2	5.6
불량식품 불매운동	6	16.7
소비자 의식교육(과소비추방, 건전소비운동 등)	9	25.0
물가오름세 막기 운동	4	11.1
소비자 관련단체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4	11.1
소비자 관련단체에서 업무보조(문서정리, 소식지 만들기, 우편발송 등)	4	11.1
소비자 관련단체에서 자원봉사자 관리(프로그램개발, 소모임 지도 등)	2	5.6
전 체	36	100.0

- 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 줍기’가 2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이 21.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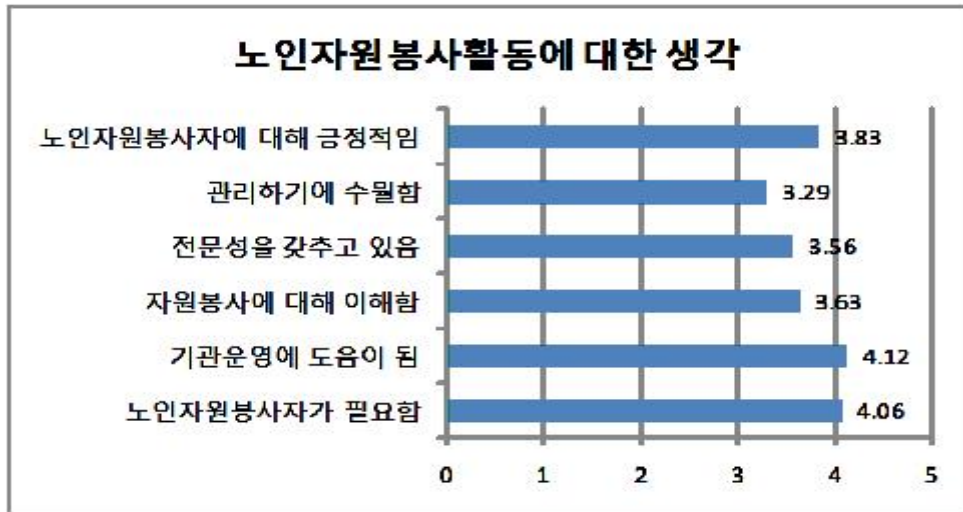
<표 9> 노인자원봉사자의 환경 분야 활동 내용(복수응답)

구 분	빈도	%
쓰레기 줍기	46	29.1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	34	21.5
낙서지우기, 벽보제거	8	5.1
새집 달아주기, 사냥 땃 제거하기	1	0.6
지역의 환경실태 정보제공	7	4.4
환경교육	17	10.8
강, 산림 등의 오염감시	3	1.9
대기, 수질 등 오염도 조사	1	0.6
노후차량, 대기오염업체, 폐수방류업체 카메라 고발	1	0.6
나무, 꽃 심기	22	13.9
벽화그리기	7	4.4
환경 관련단체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3	1.9
환경 관련단체에서 업무보조(문서정리, 소식지 만들기, 우편발송 등)	3	1.9
환경 관련단체에서 자원봉사자 관리(프로그램개발, 소모임 지도 등)	5	3.2
전 체	158	100.0

○ 본 설문에 응답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는 평균 43명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1명부터 최대 1,500명까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각 기관에서 노인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교육하고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복지관에서 파견하는 노인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도 33.2%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시민단체나 적십자봉사단의 참여를 통하거나 자발적인 참여 혹은 지역주민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활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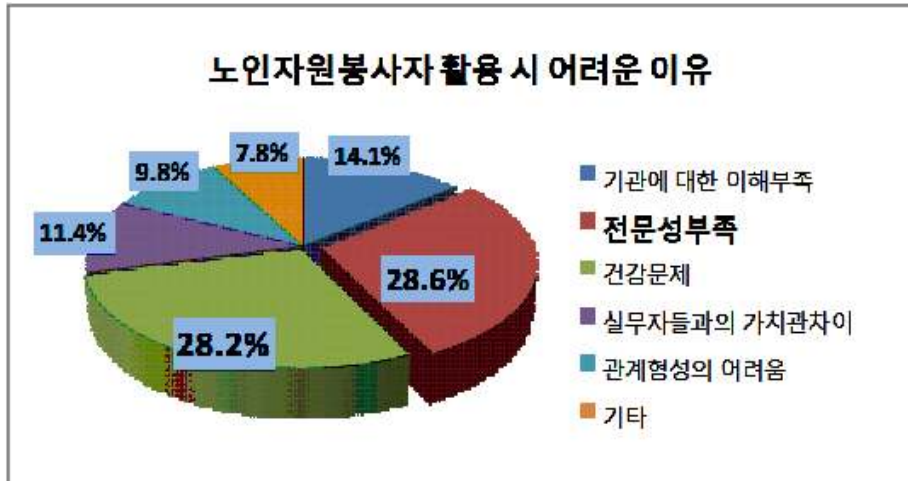
- 응답 기관의 실무자들은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기관에서 노인자원봉사자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은 5점 만점에 평균 4.06점으로 나타났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긍정적 측면]

- ◆ 어르신들과 함께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 ◆ 자신의 능력을 1% 투자하여 젊음을 유지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 ◆ 스스로 자신들을 볼가머에 가두지 마시고 봉사하신다면 행복이 2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 ◆ 아이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오세요. 아동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노인들의 활동은 아이들의 정서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 ◆ 실무자들과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습은 역의가 있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모습이 존경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 ◆ 전문화된 노인인력은 많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 현대 핵가족 시대에 어르신들께서 아동들에게 푸근한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어서 아동들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 저희 병원은 60세 이하 봉사신청서를 받으며 장기간 봉사활동으로 인해 노인자원봉사자가 된 경우이다. 같은 일을 오랫동안 반복하여 숙련된 모습으로 앉아서 손을 이용해서 하는 업무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 경석을 잘하지 않는다.
- ◆ 본원에서는 10~30년 이상의 노인자원봉사(60세이상)자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전문성은 부족하나 오래된 실무를 바탕으로 신규봉사자들의 지도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봉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 노인자원봉사자의 활용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노인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건강문제’가 각각 28.6%와 28.2%로 밝혀졌다.



- 분야별 기관의 자원봉사활동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p>복지</p> <p>(식사) 조리보조, 거동장애 식사보조, 급식 도우미, 경로식당 배식보조, 아동들의 간식 챙겨주기</p> <p>(상담) 상담서비스, 아동상담, 상담실 보조, 실버카운슬링, 우울증 예방교육 감시활동 및 상담활동</p> <p>(시설방문) 장애인의 일대일 지도(야외 나들이 보행지도, 식사지도), 장애인일상 생활지원 서비스분야(목욕, 청소), 중증 장애인들과 개별적으로 친분을 형성하고 욕구를 해결해주는 봉사,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지원활동, 재활프로그램 활동보조</p> <p>(가정방문) 재가어르신 밑반찬 배달, 독거노인 주거개선 사업에 참여(형광등 교체, 도배 작업, 집수리), 세탁업무(다림질 및 세탁기조작), 독거어르신 가정 방문하여 가사 서비스 실시(청소, 빨래 등), 목욕 서비스 업무보조, 이미용 서비스</p> <p>(정서지원) 정서지원, 말벗, 독거노인 안부전화, 외출동행, 장애인 산책 동행</p> <p>(업무보조) 복지관내 업무보조 등의 다양한 활동 연계하, 주간 보호센터 업무보조</p>
<p>문화, 예술</p> <p>(행사) 연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활동, 시민참여 대중 캠페인</p> <p>(문화활동지도) 구연동화, 레크레이션 지도, 인형극 동아리를 운영, 아동들과 체험활동, 문화예술지도, 종이접기, 뜨개질, 제빵</p> <p>(예술공연활동) 어린이 집 인형극 공연, 소외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요청에 의한 문화공연단 문화행사-에어로빅, 댄스스포츠, 포크댄스, 우리 춤 제조, 한국무용, EG밴드, 크로마하프,</p>

<p>문화공연팀은 지역사회 단체, 아동시설,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무료공연(벨리, 우리춤, 각설이, 스포츠댄스, 민요, 탈춤, 미술, 손인형극, 풍물, 화관무 등 활동), 예술봉사(합창, 우리춤, 판소리), 지역사회 행사 공연 찬조, 마술공연봉사</p> <p>(미술환경) POP 예쁜글씨 이용한 환경미화, 벽화그리기, 풍선아트를 이용한 공간 꾸미기(기타) 선거문화 월간지발간 시 수필 등 기고</p>
<p>교육</p> <p>(교육및지도) 예절교육, 바둑교육, 언어교육(중국어, 일본어), 기초학습도우미, 방과 후 학생지도, 특기교육(미술, 음악, 장기, 수예 등), 논술지도, 컴퓨터 교육(인터넷활용), 아동 훈시 교육, NIE지도, 역사교육, 인성지도, 개별학습지도, 학업부진학생 지도, 바른 글씨 쓰기, 장애아동개별지도(취미활동) 책읽어주기, 놀이지도, 바이올린 보조강습, 악기 가르치기, 전통놀이 지도, 이야기나누기(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옛날이야기 나누기),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읽어주시는 책이야기</p> <p>(아동관리) 귀가지도, 아이들 돌봄, 아동안전관리, 등하교 지도, 교통 안전지도, 아이들 관리(학교) 사서도우미(지역학교 도서관관리)</p> <p>(노인대학) 노인 문화대학 수업보조, 강의실관리, 실버대학 강좌관련 강사, 노인일자리 교육형 강사로 어르신들에게 교육</p>
<p>건강, 보건</p> <p>(병원) 호스피스활동. 물리치료 보조, 서비스, 동행 안내, 수납안내, 기도봉사, 거즈접기, 간병서비스, 린넨실에서 환의접기(세탁물), 소독품 정리(공급실), 간병인서비스</p> <p>병원로비에서 병원 내 진료과, 검사실, 병실 등을 안내, 중앙공급실에서 병동으로 나갈 물품을 소독 하기위해 정리정돈, 환자케어, 말벗, 머리 감기기, 이동 보조, 병원 소모품 만들기(거즈접기, 주사기 감기), 도서대출 및 이동도서 관리, 건강증진실 질서유지,</p> <p>(건강관련활동) 수지침 자격증을 소유하신 어르신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여 한방 봉사, 사회교육보건강사, 보건교육, 손맛사지, 건강체조, 웃음치료, 국학기공체조 강의, 요가 단전활동</p>
<p>환경</p> <p>(화단) 토종종자 지키기, 도시텃밭 가꾸기, 나무와 꽃 심고 관리, 화단관리 센터 내 잡초제거, 복지시설 주변 환경정화</p> <p>시설환경개선, 환경미화, 환경정비, 쓰레기줍기(수도권 살리기 운동 동참)</p> <p>(청소) 실내청소, 센터주변 정리정돈, 화장실, 계단 등 시설 청소, 사회교육 프로그램 실 정리정돈, 기관 내 환경정리</p> <p>(환경운동) 환경교육가, 환경실천가(EM보급, 홍보, 베르네천 수질, 식물 모니터링), 노인자원봉사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실시(국립공원 등), 환경보호활동, 생활환경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환경지킴이팀</p>
<p>행정</p> <p>소식지 제작, 주간지 만들기, 문서관리 및 정리,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p>

소비언론

불량식품 불매운동, 노인 소비피해 예방활동, 노인기자단 활동

기타

행사 지원, 조부모 역할, 복지관 안내 도우미, 인권지킴이 활동, 강사과견활동, 강사활동, 회원 상담 및 기관안내, 노-노 활동, 경로식당 질서유지, 경로당 당일 이용자 파악, 어르신들의 기술을 활용한 봉사(식당봉사, 비누 등), 도서대여 및 정리, 아이들과 이메일 주고받는 IT활동, 시장보기,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통역봉사, IT봉사진도, 지하철 안내도우미, 문화유적 해설, 우편발송도우미, 신규 회원 활동 도우미, 주차관리, 복지관 이미지 개선 홍보대사

- 한편 노인자원봉사자 활용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관리 영역 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자원봉사자 활용 시 애로사항]

○ 자원봉사자 모집

- ◆ 노인자원봉사인력이 1년만 활동 후 지원이 중단된다.
- ◆ 노인들이 찾아오기에 거리가 너무 멀다.
- ◆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늘 아쉬움이 있다. 소규모 시설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 자원봉사자 교육

- ◆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마음가짐, 방법 등)이 부족하다.
- ◆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고 필요 이상으로 욕구가 높아 개개인에게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 자원봉사자 업무 배치 및 관리

- ◆ 직무, 안전 확보에 대해 시설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과의 입장 차이가 다르다.
- ◆ 역할분담을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역량이 부족하였고 아동과의 관계성에서도 충돌이 잦았다.
- ◆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못 오게 되면 미리 연락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노인 자원봉사자의 재능을 우선으로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것 보다는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과 상호작용이 되는 분을 봉사자로 인명하여 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다
- ◆ 급식봉사가 단기적으로 끝나 아쉽다.
- ◆ 이용(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대화, 지도 방법 등이 필요하다.

○ 자원봉사자 평가

- ◆ 노인자원봉사자들의 지역아동센터의 이해부족,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경험부족, 노인의 직무에 대한 지속적 노력들이 부족하다
- ◆ 초등학생들과의 관계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 ◆ 노인분이 해당기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성실히 입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 ◆ 자원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성이다.
- ◆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 같다.
- ◆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사명감 있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자원봉사자 보상

- ◆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시점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은 많지 않으며 오래가지 못하고 책임감도 없다.
- ◆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예: 교통비지원)이 필요하다.
- ◆ 체계적인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 ◆ 노인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 ◆ 노인일자리 사업과 차별화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 건강상 문제로 기관에서 활동 시 사고가 발생 되었을 때 사고처리가 명확하게 해결 되어야겠다.

[노인자원봉사자 활용 관련 건의사항]

○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인력확보가 어려운 농촌지역에서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인력지원 및 인력 활용 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다.
- ◆ 노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 전문 프로그램 다양한 및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자원봉사자 모집

- ◆ 자원 봉사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진 노인이 많아지고,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봉사가 끊어지는데 이 기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 ◆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이용 아동의 귀가 시간은 늦은 저녁이나 밤이다. 이때 아동들이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동행해 줄 노인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좋겠다.
- ◆ 전문성을 갖춘 노인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방과 후 특기적성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양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이 필요하다.

○ 자원봉사 교육

- ◆ 기관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 중도하차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 ◆ 노인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하지 않 관리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자원봉사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 노인자원봉사자 교육단을 운영하여 파견하는 등 기관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 ◆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분야별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지식과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 자원봉사자 업무 배치 및 관리

- ◆ 노인자원봉사자 인력뱅크가 필요하다.
- ◆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 ◆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 ◆ 전담기관에서 검증된 노인자원봉사자가 파견되고 관리 되었으면 좋겠다.

○ 자원봉사자 평가 및 보상

- ◆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 ◆ 벽화그리기 및 연극공연 등과 같이 운영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 할 수 있도록 강사를 파견하여 기관에서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고 되었으면 한다.
- ◆ 필요한 수유처에 자원봉사를 원하는 노인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 기관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IV 노인자원봉사 발전 방향 및 과제

- 한국의 노인자원봉사는 아직 발달 초기단계에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인프라를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중고령자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향후 참여에 대한 희망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활동을 희망하는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의 수요처 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의 경우 전문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자격을 갖춘 노인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기관의 활동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노인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기본 방향 : 노인자원봉사 정책은 중고령자들의 활동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대한노인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사업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일자리 사업은 교육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예산 가운데 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세가지 사업은 개별적으로 기획, 운영되기 때문에 학습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거나 봉사 현장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노년기 학습활동과 무급 및 유급 노동이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통합 설계할 필요가 있다.

활동적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참여 통합지원 개념도



1 노인자원봉사자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기초 교육을 표준화하고, 봉사대상자의 특성 및 직무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원봉사 자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자격기준 등을 제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노인자원봉사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 노인자원봉사자 자격증 제도 개발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 개선
- 평생교육과 봉사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발

[외국의 노인자원봉사 동향]

○ 일본은 중고령자들의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턴십 프로그램, 인재은행 등록 및 인재 양성 사업, 포인트 제도 도입, 취업 및 창업 지원, 창업보육 지원, NPG 협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 인턴십 프로그램 <치바현 아비코시(千葉県我孫子市)>: 이 사업은 지역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여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경험을 살려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환경, 마을 만들기, 복지, 복지시설, 문화교육, 건강스포츠의 6개 분야 61개단체·시설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자원봉사 참가 촉진 이벤트도 개최한다.
- ◆ 인재은행 등록 및 인재 양성<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이주미구(神奈川県横浜市泉区)>: 지식, 경험, 특기를 살리고 싶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시민이나 단체가 자원봉사등록을 하여 이주미구 내의 평생학습 추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 ◆ 사이타마현(埼玉県) 시니어 인재 은행 제도인 「특기 능력 등록 제도」를 창설하여 등록된 시니어에게 자원봉사가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를 소개·알선하는 「시니어 자원봉사 넷 21」 운영하고 있다.
- ◆ 도쿄도 수기나미구(東京都杉並区)은 인재양성강좌로 인재를 육성하고, 자격을 인정하여 활용한다. 수기나미 지역대학은 지역활동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 협동(協働)하여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개교한 시민 학교이다. 강좌 수강 후에는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 수기나미 지역 대학 개강 강좌: 당신의 힘을 지역을 위해서!!
 - 체조 지도자 양성강좌 정원 30명 5회 (수강료: 무료)
 - 워킹 지도자 양성강좌 정원 30명 10회 (수강료: 5,000엔)

- 지적 장애인 외출지원 가이드 양성 강좌 전4회 정원 20명 (수강료: 1,500엔)
- 치매 고령자 가족지원 요원 양성강좌 전 7회 정원 20명 (수강료: 2,500엔)
- 아이 양육 지원 요원 양성 강좌 기초강좌 전 9회 정원 15명 (수강료: 무료)
- 아이 양육 지원 요원 양성 강좌 기초·응용강좌 전 17회 15명 (수강료: 4,000엔)
- 녹색봉사요원 양성강좌 전 6회 정원 30명 (수강료: 무료)
- 건강 리더 양성 강좌 전 8회 정원 30명 (수강료: 4,000엔)
- 복지차량운전자(복지 유료 운송 서비스 차량의 운전) 양성 강좌 전 3회 정원 15명 (수강료: 1,500엔)
- 시니어 IT 지도자 양성 강좌 전7회 정원 24명 (수강료: 1,000엔)
- 고령자 경청 봉사자 양성 강좌 전8회 정원 20명 (수강료: 4,000엔)
- NPO활동 실천 강좌 I 전7회 정원 20명 (수강료: 1,000엔)
- NPO활동 실천 강좌II 전7회 정원 20명 (수강료: 1,500엔)

- ◆ 포인트 제도로 인재 활용 <도쿄도 이나기시(東京都稲城市)>: 건강한 시니어 세대가(40세 이상의 개호보험피보험자) 개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연간 최대 5,000포인트(5,000엔)를 부여하여 본인 이 신청하면 「개호보험 자원봉사 평가 포인트 전환 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2011년 6월 현재 개호지원 자원봉사 등록자는 450명, 봉사자 활동 시설 20개 시설, 2011년도 급여 포인트 총수 9,160,000포인트이다. 5,000포인트를 받는 사람은 122명이다.
- ◆ <도쿄도 수기나미구(東京都杉並区)>는 60세 이상의 구민이 개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노인클럽에서 학습을 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부여하는 사업인 「장수응원포인트 사업」을 시작하였다. 1 포인트 50엔이고 수집한 포인트의 20%는 장수 응원 펀드에 기부를 하고, 80%는 지역 내의 상가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다. 도쿄도 마치다시(東京都町田市)에서도 같은 제도를 시작했다.

○ 미국

- ◆ 오아시스(OASIS)는 전국 단위의 평생학습 기관으로 50세 이상의 미국인들이 평생학습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 인문학, 건강, 기술 및 자원봉사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오아시스는 중고령자들이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끈다. 오아시스 본부는 세인트 루이스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국 27개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및 커뮤니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부에서는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기관 교육자들을 훈련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메이시 백화점, BJC의료서비스 및 AT&T 재단에서 후원하며, 메이시 백화점 교육센터, 헬스클럽, 병원, 노인복지관, 쇼핑몰 등에서 제공된다.
- ◆ 노인봉사단(Senior Corps)은 국가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CNCS)의 3대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가봉사단 운영예산의 약 17% 비중을 차지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욕구충족을 위해 은퇴자의 경륜과 사회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약 50만명의 55세 이상 봉사자들이 65,000개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 중이다. 노인봉사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양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소외계층 동반자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퇴직자봉사프로그램(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이 있다. 양조부모 프로그램과 소외계층 동반자 프로그램은 주당 40시간 활동하고 시간수당 및 상해보험을 제공한다.

- ◆ 셰퍼드 센터(Shepherd's Centers of America (SCA))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봉사 조직으로 고령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기술을 활용한 활동을 하도록 조직화한다. 1972년에 설립된 셰퍼드 센터는 전국에 100개의 센터가 연결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웃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셰퍼드 센터는 파트너 기관들과 제휴하여 센터 회원들에게 평생교육, 건강관리 서비스 및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 : 박영란외(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개발 연구」.

2 노인자원봉사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최근 노인자원봉사는 그동안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환경미화, 배식, 시설관리 등 단순 자원봉사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봉사, 문화봉사, 안전지도, 독거노인 돌봄 봉사 등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현장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다. 또한 퇴직자 단체들의 참여를 계기로 향후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수요처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와 전문적 직무 능력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개별 기관에서 노인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직무 훈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자원봉사 교육과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자원봉사 수요가 많은 분야 등을 선별하여 노인자원봉사 표준 프로그램 개발
- 분야별 자원봉사 기초 교육 및 직무 교육 과정 개발 및 보급

3 노인자원봉사 관리 역량 제고

○ 대부분의 노인자원봉사가 단기간의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리자의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자원봉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제공 등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노인자원봉사 업무 담당자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봉사자 모집, 교육, 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노인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자원봉사 관리자’의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개발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수요처들의 네트워크 구축 : 노인자원봉사 활용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 노인자원봉사 관리자 아카데미 운영 : 기획, 모집, 교육, 업무배치, 평가 등의 자원봉사 관리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학습 기회 제공

[노인자원봉사 관리 과정의 쟁점들]

- 활동 내용과 봉사자의 특성이 잘 맞는 프로그램인가?
- 노인들의 적성과 취미에 적합한 봉사활동인가?
-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가?
-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가 있는가?
- 실현가능한 사업목표를 설정하였는가? 참가자 모집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 봉사자 모집 홍보를 계획대로 실시하였는가?
- 봉사자 모집 시 봉사활동의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였는가?
-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가(교육시간, 방법 등)?
-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가?
- 봉사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소집단 중심의 관리를 하는가?
- 봉사활동을 모니터링하는가?
- 활동일지 작성, 비디오 영상촬영 등 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록을 관리하는가?
-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가?
- 자원봉사 프로그램 담당자를 위한 조직 내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외부의 금전적 지원이 없이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는가?

4 노인자원봉사 윈스톱 창구 개발

○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노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요처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자원봉사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 전문노인자원봉사 사업의 경우 참가자들은 기존에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운영 시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향후 노인자원봉사 단체 및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윈스톱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 노인자원봉사 관련 종합정보 및 안내서비스 제공
- 노인자원봉사 관련 상담 인력 양성

5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홍보 확대

○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단체가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또는 노인자원봉사 총괄 부서에서 참여 및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한 노인자원봉사 사례 소개
- 노인자원봉사 동영상 자료 제작 및 배포
- 수요처에 지속적인 정보 제공



참고문헌

- 권미애, 김태현(2008),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자원봉사활동 집단과 경제활동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8권 4호 II 통권 제64호, pp.1089-1111.
- 권중돈(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미혜·정진경(2003).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 활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4권, 221-243.
- 박영란외(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개발 연구』.
- 보건복지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 보건복지부(2009),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보건복지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
-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이금룡(2003),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모집전략 방안 : 자원봉사경험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노년학』, 제23권 3호 통권 43호, pp.79-94.
- 이소정, 정경희, 이윤경, 유삼현(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협, 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경희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손창균, 박모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09), 『2009 고령자 통계』.
-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 한경혜 외(2011), 『한국의 베이비 부머 연구』, 서울대학교 노화·고령 사회연구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0), 『노인자원봉사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
- 행정안전부(2008), 『2008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연구』.
- World Health Organization(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Session II,III

종합
토론

고 재 욱 (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김 희 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임 병 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 현 탁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노인자원봉사 현황 및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

고 재 욱 (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I 들어가며

발제자께서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관점에서 특히 무보수 노동인 자원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노년기 자원봉사 현황을 파악하고, 아직 발달 초기단계에 있는 노인자원봉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매우 잘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시해주신 이슈들을 살펴보면

첫째, 아직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낮다.

둘째, 자원봉사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다.

셋째, 활동 기회도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제시해주신 이슈들에 대한 근거로 들어주신 노인자원봉사 참여 현황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보면 2008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와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로서 급변하는 노인인구의 변화와 노인계층의 변화를 감안할 때 2011년의 현실을 얼마만큼 증명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전국 60세 이상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2.1%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낮은 편이라고 분석하셨는데 20대 13.9%, 30대 13.6% 등과 비교 하였을 때 낮다고 표현하기에 충분한 차이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다는 지적은 대한노인회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노인 단체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과소평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시, 도 연합회, 군, 구 지회의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예 따라 각 지역별로 “지역봉사지도원”을 선정, 발대식을 갖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회도 제한적인 실정이라는 이슈는 경로당이라는 접근성과 용이성을 갖고 있는 노인 시설에서 대한노인회 및 구청의 지원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로당 시설은 대한노인회 산하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 마다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봉사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복지관 내에서 안내 및 행사도우미, 식당배식, 업무보조, 각종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복지관 밖에서는 교통질서, 청소년 선도,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세대 간 연계 프로그램으로 연합 자원봉사, 문화공연, 체조지도 등과 독거노인에게 밀반찬배달 및 말벗, 이동보조, 가사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자원봉사 발전 방향 및 과제로 들어주신 의견으로 노인자원봉사자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표준화하고, 봉사대상자의 특성 및 직무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아울러 자원봉사 자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자격기준 등을 제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자원봉사 기초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중심으로 노인자원봉사 인정 및 보상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점은 발전방향 및 과제로 들어주신 다른 의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노인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대한노인회를 통하여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조사한 내용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다만 이러한 저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자원봉사활동이 2009년이나 2010년에 비교하여 불과 몇 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발전에 관하여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며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일과 자원봉사를 통한 노년기 삶의 긍정적 변화 종합 토론문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I 들어가며

- 노인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질병(疾病), 빈곤(貧困), 고독(孤獨) 등 3고(苦)를 들 수 있음. 이같은 3고는 개별적인 문제로 분리·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삶을 관통하며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 ‘인격과 지혜와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보석’이라는 말처럼 노인이 지나온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왕성한 판단력과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기질·적성을 감안해서 일거리를 만들거나, 과거의 경험을 살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임.
- 노인에게 있어서 자원봉사는 노인여가선용의 중요한 영역이며,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주류에 참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효과를 가짐. 또한 노인이 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고 동시에 노인 유희인력을 사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기도 함. 이런 점에서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제임.

II 발제문에 대한 토론

- 노인자원봉사활동은 국내외적 추세에 비추어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할 영역이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두 발제는 매우 가치있는 연구라고 사료됨.
- 우선 “자기주도적 노인자원봉사활동과 노인봉사자의 긍정적 변화” 발제에서는 노인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건강이 증진되고 건강을 위한 행위들이 증가하였으며, 일상생활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했고, 사회적 관계나 가족관계 등이 개선되었다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무엇보다도 노인들은 자기주도성을 통해 노년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되는 동시에 시간개념에 대한 변화와 시간활용이 효율적으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노년기 삶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결론은 노인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노년기 삶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단순히 무료를 대체하고, 자신의 경험을 살린다는 소극적인 자원봉사활동보다는 노인 스스로가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평가하며, 자발적인 학습체계를 진행하는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자기주도성은 어떻게 발전되는가? 발제자료 36cut을 보면 자기주도성은 전문성으로부터 나오고 전문성은 학습을 통해 확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발적 학습체계가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임. 따라서 노인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본 과제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인들의 학습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함. 연구의 범위가 자기주도적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자율적 학습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은 본 발제의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노인자원 현황 및 발전 방향” 발제는 노인의 자원봉사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발제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자료를 엮다보니 현황과 발전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음.
- 발제자는 노인자원봉사 발전과제를 ‘경력개발시스템 구축’, ‘자원봉사 관리 역량 제고’, ‘자원봉사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시하고 있음. ‘경력개발시스템 구축’과 같은 과제는 매우 참신하고 자원봉사를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이러한 과제를 누가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과제라고 하더라도 추진 주체가 없다면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임.
- 아마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염두해 둔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지역에서는 고민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임. 즉, 지역차원에서는 노인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광역

혹은 시군자원봉사센터와 실버인력뱅크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 복지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전달체계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노인자원봉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임. 이런 점에서 각 과제를 수행할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역차원의 전달체계까지도 함께 고민해하는 것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임.

III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첨언

- 자기주도적 자원봉사활동이 되기 위해 노인들이 자발적 학습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사료됨. 따라서 외부에서 학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그때 학습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적절할 것임.
 - 다만, 노인자원봉사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은 노인의 연령을 세분화하고, 관심분야, 참여목적 등에 따른 세부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임. 예를 들면, 50대는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60대 이후 연령은 통상적인 개념의 자원봉사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의 초점을 두는 것임. 또한 이들의 사회참여활동이 상근활동가인지 비상근활동가인지까지 고려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이렇게 세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노인은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을 구분하여 동질집단으로 묶기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른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임.
- 노인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인원이 많아야 함. 노인분야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질적, 양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냄. 한국 전쟁이후 불붙기 시작한 교육열 덕분에 교육연수는 평균 12년으로 50세 이상 세대(약 8년)에 비해 길고, 전체 토지의 42%, 부동산의 58%,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으며(연합뉴스, 2009.9.27 보도자료), 고도성장기의 주역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자원봉사영역으로 끌어들인다면 노인자원봉사의 큰 변화와 함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자원(資源)으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베이비 부버를 포함한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컨설팅’이 필요함. 두 번째 발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들은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함. 퇴직자들이 단순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경험과 능력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원봉

- 사 영역을 탐색하고 찾아가기까지는 개인별 욕구 상담, 봉사영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임.
- 이런 점에서 노인자원봉사원스텝 창구 개발이나 홍보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

자기주도적 자원봉사활동과 노인봉사자의 긍정적 변화/노인봉사활동현황 및 발전

임 병 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들어가며

- ◎ “자기주도적 자원봉사활동과 노인봉사자의 긍정적 변화”와 노인자원봉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신 박영란 교수님과 이금룡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욕고를 토론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 ◎ 먼저 이금룡 교수님께서 ① CI사업, ② CI사업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현황, ③ 자기주도성의 현황, ④ 봉사자 개인적 변화, ⑤ 변화요인분석, ⑥ 인과적 효과분석으로 6개 파트로 나누어 발제/발표해 주셨습니다.
- ◎ CI사업의 핵심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참여와 지역사회/봉사자의 문제해결과 긍정적 변화 유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역사회성과와 프로그램참여자의 성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인 듯합니다.
- ◎ 자기주도적 노인자원봉사활동은 기존의 노인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나 자기주도적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 전달체계의 변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자원봉사센터/전문가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관계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 좀더 구체적으로 첫째, 자원봉사센터/전문가와 자원봉사자/단체간의 관계의 변화-동반자적 관계, 둘째, 자원봉사센터/전문가의 역할변화-참여구조의 변화(주도적 역할에서 지원 역할), 셋째, 자원봉사자간의 신뢰성 형성 메커니즘의 변화가 시도되어졌다고 보여 집니다.

- ◎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지? 현재 노인자원봉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서 발생/진화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노인자원봉사의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원인에서인지 궁금합니다.
- ◎ 이와 같은 변화를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더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첫째, 자원봉사센터/전문가의 개방성이 강조된다. 자원봉사 전문가/행정가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영역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의 형태가 자원봉사자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단체간의 상호 협력이 중시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가의 간접개입이 중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둘째, 노인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이러한 봉사자주도적인 참여의 기회를 주어진다면 참여의 범위와 정도는 어느 정도일지? 또한 이러한 자기주도적 봉사는 정보수집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듯한데 전문가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수집의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셋째, 노인봉사자중심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듯 합니다. 그런데 봉사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었을 때 잘못된 선택까지도 봉사자주도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파워링 또는 학습을 지원하여 의사결정의 기능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자기주도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와 자기주도형 봉사조직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듯합니다.
- ◎ 선진국의 사례(영국의 에이지컨선)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자기주도적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이드라인 등이 개발되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음은 박영란 교수님께서 노인자원봉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① 서론, ② 자원봉사 참여 현황, ③ 자원봉사관련 정책 현황, ④ 노인봉사 발전 방향과 과제로 4개 파트로 나누어 발제/발표해 주셨습니다. 본 토론자는 발표 내용 중 자원봉사 발전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제자께서는 노인자원봉사 발전 기본 방향을 중고령자들의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접근과 HRD(인적자원개발)관점에서 학습활동과 유무급자원봉사의 연계/통합설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더불어 지역친화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이금룡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지역/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연륜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과 박교수님의 발제문에 나타났듯이 취미와 경력이 반영된 자원봉사 개발이 기본방향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 노인자원봉사 과제로 ① 노인자원봉사 경력개발 시스템구축, ② 노인자원봉사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③ 노인자원봉사 관리 역량 제고, ④ 노인자원봉사 원스톱 창구개발, ⑤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홍보 확대를 제시하셨습니다.

◎ 발제자께서 진단한 중 고령노인자원봉사의 과제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발제 내용을 근거로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고령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험을 기반으로 노인취미(동아리)→노인자원봉사로 연계되는 시스템의 구축, 과거의 직업 경력을 기반으로 복지영역→교육영역→문화영역으로의 연계 시스템의 구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중고령노인자원봉사의 자생력을 길러야 합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과제들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인자원봉사 영역 내에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전략적인 자구 노력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주간서비스센터(day service centre)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 의미 있는 발표해 주신 이금룡 교수님과 박영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토론을 가름할까합니다.

종합토론 세션 Ⅱ~Ⅲ

채 현 탁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곧 닥칠 고령화 시대로 인해 보장하는 복지와 참가하는 복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최근 퇴직을 맞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년기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사회 변혁을 견인한 세대이다. 향후 이들의 노년기 활약상을 미리 예견해 보고 사회 발전의 동인으로 삼으려는 준비 작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100세 시대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와 맞물릴 것이다.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동인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은 이들의 참여를 자극할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100세 시대, 베이비부머의 활약은 자원봉사활동을 매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꿈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토론은 기본적으로 이금룡 교수님과 박영란 교수님의 발표내용에 동의하면서, 학술적인 수준이 아닌 이번 포럼의 핵심 주제인 '노인자원봉사의 발전방향에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차원에서 진행해 보고자 한다. 자원봉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는 활동의 수요처, 공급처, 그리고 조정처(조정자)에 대한 논의이다. 본인은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토론거리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수요처, 즉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이금룡 교수님의 발표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 교수님이 발표에서 제시한 자기주도성(자원봉사자 주도형)과 지역사회 성과(Community Impact)의 개념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것은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기 성숙과 사회 기여라는 인간 본연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노인자원봉사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삶의 가치를 반추하는 시기에, 우리 사회 큰 어른의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자발적, 자기주도적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의 제도까지도 변혁시킬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사소한 활동이라도 자원봉사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것, 노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처를 확대 하는 것, 세대 간 융합 활동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원봉사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 가야 한다. 한 개인의 사소한 활동도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염두 해 두어야 하며, 노인이라도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보다는 노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세대 간에 융합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은 노인이 주도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노인자원봉사활동의 공급처에 관한 논의로 노인자원봉사자와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금룡 교수님께서 제시한 자기주도성과 박영란 교수님께서 제시한 노인자원봉사자의 특성과 관련한 데이터는 중요하다. 박 교수님은 노인자원봉사자의 특성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자, 지속적인 봉사활동 수행, 이타적인 활동 동기 등을 정리하여 제시해 주셨다. 물론 이 데이터가 전문 직업을 가졌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일반화에 한계가 있지만, 노인들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 교수님이 발표에서 제시한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노인자원봉사’는 노인자원봉사자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적절히 제시해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박 교수님도 언급하셨듯이 노인자원봉사활동이 평생교육과 연계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인은 여기에 복지교육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교육은 정상화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들의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력을 키우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인권 감각 및 의식 개발,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및 생활자로서의 지식·경험에 기초한 문제 파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욕의 고양과 실천 방법 체득 등을 포함한다(박태영 외, 2008, p.236). 노인자원봉사에 평생교육과 복지교육을 연계하는 일은 이금룡 교수님께서 제시한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자원봉사활동 조정처(조정자)의 역할도 또한 중요하다. 본인은 자원봉사활동은 '관리'가 아닌 '조정'이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오고 있다. '관리'라는 단어 속에는 '통솔하고 감독 한다'는 의미와 '소유와 같은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원봉사자는 조정처(조정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이들의 임무는 자원봉사자를 노력 제공의 자원으로 확보(소유)하여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것이다(박태영 외, 2008, p.124).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박영란 교수님이 제시한 노인자원봉사의 발전방향과 과제는 조정처(조정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노년기 학습활동과 무급 및 유급 노동이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통합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내용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자기 성숙과 사회 기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

를 위해서는 박 교수님께서 제시한 과제들에 더하여 보다 정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렇다면, 노인자원봉사는 보다 거시적인 생애 설계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東京ボランティアセンタ, 1993), 이를 위한 자원봉사조정자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퇴직 준비 교육이나 사원교육에 자원봉사강좌를 삽입하여 진행하여 노년기에 자원봉사활동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거나, 현역시대의 노하우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활용되고 발전되어 유급 노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 또한 자원봉사조정자의 역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베이비부머의 100세 시대는 분명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위기이면서 기회가 될 것이다.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생활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닌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박태영 외(2008), 자원봉사론, 공동체.

東京ボランティアセンタ(1993), シニアボランティアセンタ コーディネーターマニュアル.